



두번째  
이야기

# 바다가

소소하고 따뜻한  
부산의 일상을 담은 책

바다가

두번째  
이야기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한 우리의 고향, 녹산고향동산

## 바다가

소소하고 따뜻한  
부산의 일상을 담은 책  
[www.bmc.busan.kr](http://www.bmc.busan.kr)

###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수집 및 이용목적: 영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 보유기간: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처리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요금수취인부담  
발송유료기간  
2020.7.13~계속  
부산전우체국 승인  
제40186호

BMC 부산도시공사  
바다가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경영지원실  
<바다가> 담당자 앞

4 7 2 8 1



<바다가>는  
 모바일 웹진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웹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adaga.bmc.busan.kr

<바다가> 두번째 이야기

발행일 2020년 7월 17일  
 발행인 김종원  
 발행처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기획·진행 고객소통부 이용재 (Tel. 051-810-1484)  
 제작·인쇄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5)

함께 만든 이  
 글 정소야 김민정 김혜민 이슬기 | 사진 차유진  
 디자인 권혜연 | 일러스트 이희훈 김수진

# 바다가



또 한번 용기내어 따뜻한 출발!  
 고향도 그대도

- 부산 서쪽 범방동도
- 부산 동쪽 반여·반송·석대동도
- 부산 중심 서면시장도
- 우리동네 예술가도
- 출근하는 직장인도
- 퇴직하는 꽃중년도
- 나도, 당신도!

두번째  
 이야기

# Opening

## ‘바다가’의 탄생

부산이 부산스럽게  
부산이 자랑스럽게  
부산이 사랑스럽게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산사람들이, 부산과 인연이 닿는 사람들이 부산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우리는 고민하다가 회사 이름의 자음만 모아 부산스럽게 쓰고,  
사이에 있는 ㅅ을 살짝 기울여 ‘바다가’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의 바다처럼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시와  
그 안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겠다는 결심을 하며...

시작은 했는데, 처음하는 일에 막막하고 망망하던 순간  
책 이름을 지으며 ‘바다가’, ‘책바다가’, ‘바다가세요.’  
수많은 단어를 조합하며 설레이던 순간  
생소한 이름과 구성으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던 순간  
그래도, 용기를 내어 책이름을 ‘바다가’로 결정하고,  
한 땀 한 땀, 의미있는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고 기록하던 순간

그렇게 우리에게,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책 ‘바다가’가 탄생했습니다.

혹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어떤 꿈을 품고 있나요?

의미 있는 일들의 탄생은 이러한 특별한 과정을 함께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땐 갈등과 진통을 세트상품처럼,  
고스란히 함께 겪어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다가’는 탄생의 진통과 기쁨을 기억하며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만날 준비를 하며!

그리고 ‘바다가’를 펼쳐든 당신도  
당신이 더 당신스럽게, 더 자랑스럽게, 품고 있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리스타트 Re: start! 또 한번 용기내어 따뜻한 출발!

# Contents

04 오프닝 ‘바다가’의 탄생

### 부산테마 \_ 고향의 리스타트 Re: start

- 06 테마에세이 내 삶의 출발점, 고향의 새 출발
- 12 순간의 필름 하이, 바이 센텀2지구! 따뜻한 우리 기억의 단상들
- 18 테마스토리 수영강변의 마을 첨단산업단지가 되다
- 22 클로즈업 석대에서 꽃길을 걷다, 석대화훼단지의 어제와 오늘

### 부산사람 \_ 고향사람의 리스타트 Re: start

- 28 이호섭 예술인이자 디렉터로, 다시 시작한 예술인의 삶
- 32 조태영 새로운 발효 전통을 이어가는 일
- 34 김민정 새로운 시선, 부산의 기록이 되다
- 38 바다가 리서치 바다가 사람들의 ‘리스타트’
- 40 양현태 지금부터가 진정한 전성기!
- 42 김도연&김수진 나의 새 출발, 너의 새 출발

### 부산동네 \_ 서면시장의 리스타트 Re: start

- 44 서면시장 스토리 이웃 서면시장 한바퀴, 추억 그리고 꿈을 파는 시장
- 50 서면시장 맵 서면시장 OLD&NEW
- 52 인터뷰 ① 서면시장을 지켜온 사람들
- 53 인터뷰 ② 서면시장을 이어가는 사람들

### 바다가 소식

- 54 바다가 특집 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시작
- 56 바다가 특집 ②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살리기 앞장!
- 58 바다가 핫이슈 바다가 주요 뉴스
- 60 바다가 프로젝트 바다가, 행복을 짓다 + 부산을 품다
- 62 #바다가스타그램 일상 속에서 만난 ‘나의 부산’을 소개합니다

## 내 삶의 출발점, 고향의 새 출발

영화 「리를 포레스트」를 떠올려본다.  
도시생활에 진저리를 느낀 주인공은 터벅터벅 고향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눈이 켜켜이 쌓인 앞마당에서 배추를 뽑아 달달한 배춧국을 끓인다.  
오늘을 떨던 주인공은 뜨끈한 배춧국을 한 사발 들이켜고야  
배를 두드리며 고향집 방바닥에 드러눕는다.  
비로소 살았다는 듯이. 그때부터였을까.  
고향은 뜨끈한 배춧국과 같다고 생각했다.  
몸과 마음이 육신육신 아플 때 생각나고,  
달짝지근하게 내 몸에 당도를 올리면서도 해롭지 않은 웰빙.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배춧국이 필요하다.  
멈춘 심장의 엔진이 가동되는 뜨거운 기억 한 사발.  
우리에게 고향은 늘 그 뜨거운 엔진음, 출발과 맞닿아 있었다.

## 태마에세이

### 고향의 의미

고향,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장소. '고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주면서도 정작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단어다.

고향은 내 과거가 있는 정든 곳이며 일정한 형태로 형성된 하나의 세계와 같다. '공간'과 '시간'인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인 '마음'이 복합적으로 얽힌 심성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각인각색으로 모습을 달리한다. 그러나 그리움, 잊을 수 없음, 타향에서 곧장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라는 면은 공통적이다.

사실 고향의 가장 대중적인 의미는 태어난 장소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생물학적인 탄생이며, 고향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난 것은 지리학적인 탄생이다. 이 때문에 어머니 자궁과 고향은 생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각인된다.

### 역사적 고찰로 본 고향

고향의 의미와 장소는 역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먼저 건국신화를 살펴보자. 단군신화의 단군, 고구려 건국신화의 고주몽, 백제의 비류와 온조, 신라의 박혁거세, 석탈해와 김알지, 가락국 김수로왕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점이다. 그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고향은 어디인가. 바로 고향은 하나, 하늘을 뜻했다.

삼국·고려·조선시대의 고향은 삶 그 자체에 비견되었다. 당시 고향을 잃은 사람은 대부분 외교상의 인질이 되거나 전쟁 중 포로가 된 이들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비운 속에서 적국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고국과 가족과 고향을 함께 잃었다. '생명'을 잃는 것과 다름 없던 것이다.

집과 도시 사진공모전 수상작 '성남 태평동(민경현 작)'



## 부산테마

## 고향의 리스따뜨



집과 도시 사진공모전 수상작 '나의 살던 고향은(권원욱 작)'

### 어린 시절 따스한 장면과 추억이 기록된 도시의 한복판,

### 그곳이 고향인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고향의 상실'은 항쟁의 역사로도 읽혀진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며 의병들은 독립투쟁을 위해 고향을 떠나 만주 등지로 흩어졌다. 하지만 당시의 탈향은 고향을 지키고 다시 돌아오기 위한 값진 상실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고향의 상실'은 민족의 큰 아픔과 직결된다. 1950년 6·25 전쟁으로 공산군이 남침하면서 300만에 이르는 북쪽 주민들이 남쪽으로 피난했다. 당시 북한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이북 피난민들은 곧 고향에 돌아가리라 기대했지만 남북 사이에 국경선이 놓이며, 영영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실랑민이 되었다.

### 고향에 대한 세대 차이

우리나라는 급속히 발전해갔다. 도시화 현상으로 젊은이는 모두 도시로 몰렸고 농촌 인구는 급감했다. 당시 도시에 정착한 세대는 전반기 농촌, 후반기 도시라는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가졌기에, 명절이면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향이 일상화되었다. 때문에 '부모님의 고향=시골 농촌 마을'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했다. 하지만 자식세대에 이르며 고향의 장소는 확연히 달라졌다. 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라면 그들의 인식처는 '도시'다. 어린 시절 따스한 장면과 추억이 기록된 도시의 한복판, 그곳이 고향인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한다. 그 흐름 속에 고향의 의미가 달라져왔듯, 고향마을의 모습도 늘 그대ροι인 것이다. 발전과 개발의 흐름 속에 옛것은 이내 새것으로 옷을 갈아 입는다. 혹여 추억 속의 그림 한 폭을 안고 고향을 찾았다면, 적잖이 변한 그 모습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환상이 깨어지고 귀중한 보물을 도둑맞은 것 같은 우울감에 빠질지도 모른다.

녹산고향동산 조성기

최근 강서구 녹산 주민의 마을도 개발의 시류 속에서 변화를 맞았다. 90년대 조성된 녹산국가산단부터 현재 국제산업물류도시까지 10여 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영향이었다. 변혁의 10년, 28개(2004년 기준)였던 마을은 9개로 줄었고, 마을이 터를 비운 곳에 새로운 산업도시가 만들어졌다. 범방, 미음, 생곡, 세산, 가리새마을... 오랜 역사와 기억을 켜켜이 쌓아온 고향 동네가 사라진 것이다.

개발이란 어차피 붙잡을 수 없는 시류와 같다. 그 속에서 고향 동네는 서서히 변화하며 새로운 태동을 겪어낸다. 모습은 변할지라도 여전히 고향의 대지는 어머니 품처럼 새 희망의 씨앗을 품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옛 고향의 역사와 기록은 존재한다.

2015년 3월 녹산향민연대(녹산포럼, 녹산중·세산초등 총동창회 등 13개 협의체)는 부산 도시공사에 마을을 기억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고, 부산도시공사는 그 의견에 힘을 보태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9년 4월 비로소 따뜻한 기억을 품은 '녹산고향동산'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서낙동강변 1.6km 구간, 전체 면적 6만 5,000여 m로 축구장 9개 크기, 65억 원이 대거 투입된 사업이었다.

녹산고향동산

녹산 주민들의 애환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만든 공원이다. 서낙동강변 1.6km 구간, 전체 면적 6만 5,000여 m로 축구장 9개 크기로 65억 원이 투입되었다. 녹산고향동산에는 '문화공원'과 '녹산고향동산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 + 문화공원 강변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녹지공원. 한 가운데 작은 동산에는 고향을 기리는 공간인 망배단과 망배단비, 추억의 벽을 볼 수 있다.
- 기념관 1층 전시실에는 옛 마을 모습을 축소해놓은 모형과 사진 등 기록물들이 전시돼 있다. 2층 전시실에는 옛 녹산면사무소와 초등학교 모습, 강과 바다, 갯벌 등을 재현해두었다.

녹산고향동산의 리스따뜨,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 📍 '녹산고향동산' 검색, 주차장 총 32면 무료(부산 강서구 범방동7)
- 🚌 버스 강서구 7, 강서구 7-2, 1005, 220, 221 ('사구' 정류장 하차 후 10분 도보 이동)



고향에서 찾은 안식

녹산 주민들에게 고향은 무엇이었을까. 또 우리에게 고향은 무엇인가. 그 진심에서 시작된 '녹산고향동산' 조성 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 녹산마을 주민들의 마음에 닿았는가에 달려있다. 그들이 이곳에서 고향의 추억을 양분 삼아 삶을 살아내고, 아름다운 기억의 유산을 이어갈 때 오랜 고향의 역사도, 새롭게 만들어진 녹산고향동산도 힘을 낼 수 있다. '고향은 사라졌지만 고향은 동산에 살아 있다.' 아이러니해 보이는 이 문장은 사실 삶을 관통하는 메시지일지 모른다. 우리의 고향은 고정된 피사체가 아닌 시대의 바람에 무수히 변화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고향은 언제 변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억은 다르다. 그 속에서 고향의 추억은 영원히 변치 않는 화석이며 신념이다. 그 기억이 변하지 않는 한 내 안의 고향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단단한 고향 땅을 딛고 나아갈 우리의 미래와 새 출발의 방향도 안정적일 것이다.

단단한 고향 땅을 딛고  
나아갈 우리의 미래와  
새 출발의 방향도  
안정적일 것이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 중 주인공의 어머니가 남긴 편지의 한 자락을 곱씹어본다.

"아빠가 영영 떠난 후에도 엄마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너를 이곳에 심고 뿌리내리게 하고 싶어서였어. 해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젠가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엄마는 믿어."

리틀 포레스트 속 주인공은 고향의 양분을 충분히 먹은 뒤 생기를 되찾고 당당히 새 삶을 준비한다.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씹면 언젠가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고향이 주는 안식과 양분은 영원하다.

# 하이, 바이 센텀2지구 따뜻한 우리 기억의 단상들

잊은 줄 알았다. 어린 시절 꾸꾸바를 입에 물고 달리던 그 골목을, 말뚝박기의 아찔함과 무던히도 끊어먹던 고무줄 놀이의 추억도... 하지만 그곳에 선 순간 그때의 기억이 오롯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동네, 그곳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심의통과 되면서 개발이 예정된 센텀2지구도 다르지 않다. 누군가의 고향이고 추억일 이곳. 때론 환희이고 고독이며 사랑이었을 그 순간의 풍경들을 담아보았다.

## 1 오래된 골목의 단상

### #석대동 골목길

문만 열면 이웃집 대문이 마주하던 곳,  
석대동 오랜 골목길. 집집마다 거미줄처럼 엉켜  
있던 전선줄은 우리를 잇는 통신선이었을까.  
눈만 뜨면 만나던 동네 친구들과 골목길 바닥에  
그려 놓던 흰 그림과 싱거운 농담들.  
별 것 없이 웃고 울던 빛나던 나날이  
지금도 그곳에 살아 숨 쉰다.

#석대동 주거지

어릴 적 우리 동네 은행나무 한 그루.  
그때 나이가 20살이라던 녀석은 3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나이만큼 고장 난 건 나쁜인가.  
오래된 동무 옆에 자전거를 세우고 잠시 그늘을 씌어 본다.  
나무와 자전거 뒤로 그림자가 진다.  
빛과 그림자가 만든 평화로운 회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심이 이곳에 있다.



#풍산 인근 부지

붉은 장미가 차가운 철조망을 타고 오른다. 철망 너머는 멈춘 시간의 편.  
시멘트가 지워진 건물,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놀이터는 옛 영광을 기억하고 있다.  
멈춘 시간의 기록을 되살리려는 붉은 장미의 염원. 그들은 굳건히 철조망을 넘어 달린 시간을 넘는다.  
다시 생동의 시간, 꽃피는 계절이 왔다.





## 4 물길이 흐르는 곳

### #석대천

세월만큼이나 바쁘게 흘러온 내천, 석대천. 세상사 늘 좋을 수만 없는데도 푸른 녹음 속 물길소리는 늘상 걱정 없이 청명하다. 힘든 시간, 어려운 고비 다 그럭저럭 지내온 것은 다 물길 옆을 걸어서다. 걱정도 미움도 다 흐른다는 것, 다 지나간다는 것을 너로 인해 배운 덕분이다.



## 5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반송동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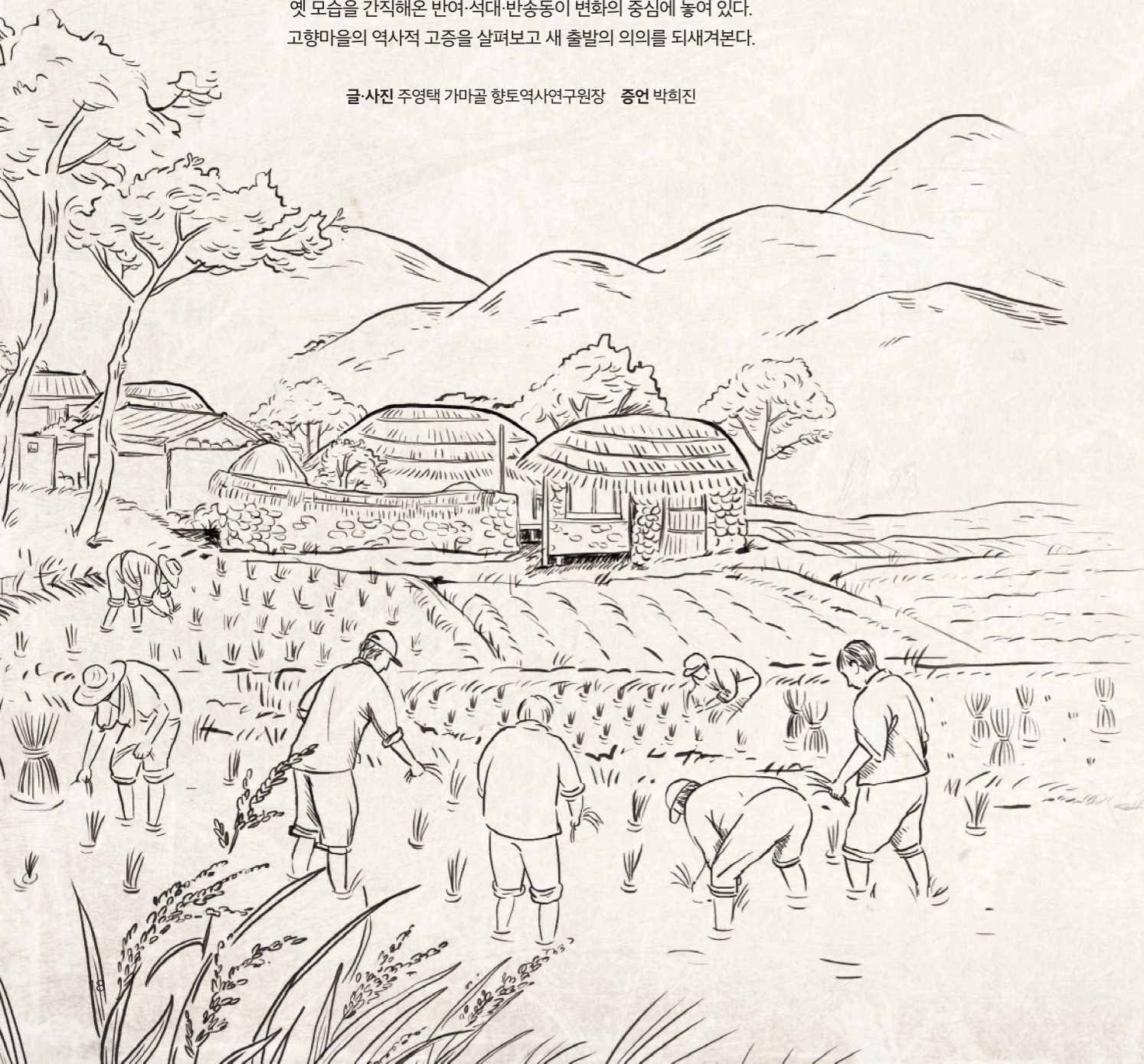
비탈진 길을 올라야 볼 수 있다. 고된 땀을 흘려봐야 알 수 있다. 반송동 언덕배기 위에 서보면 모든 것이 발아래, 두려울 것이 없는 곳. 어릴 적 나를 키운 오래된 빌라도, 저 멀리 화려한 센텀의 고층 빌딩도 다 한눈에 담긴다. 내 심장의 진폭을 움직인 과거와 미래, 오늘의 포부가 여기 다 있다.



# 수영강변의 마을 첨단산업단지가 되다

2020년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심의통과되면서 옛 모습을 간직해온 반여·석대·반송동이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 고향마을의 역사적 고증을 살펴보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글·사진 주영택 가마골 향토역사연구원장 증언 박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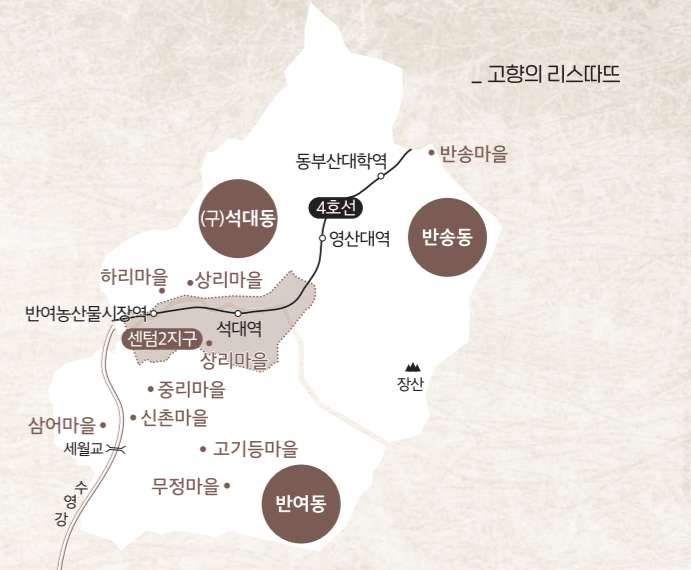
## 반여·석대·반송동, 첨단산업단지로의 변화

이곳은 반여동을 에워싼 장산(643m)이 우뚝 솟아 있고 앞에는 수영강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지다. 장산은 조선 시대 소나무를 길러 목재자원의 공급지로서 채벌을 금지한 보호된 봉산峯山이다. 장산은 민간인도 출입이 금지되어 소나무숲이 형성되었다.

여러 곳의 너덜경(돌바다) 밑으로는 항상 물이 흘러 '장산은수長山澗水'로 물이 풍부한 산이었다. 반여동 사람들은 농사일을 천직으로 삼고 자연과 소통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왔다. 임진왜란 때 향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살았기에 삼절사와 정여각 등 충효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기도 했다. 순박한 농촌마을이던 반여동은 1960년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이 시작될 때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장이 하나 둘 건립되었다.

중리中里마을은 반여동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중리라 하는데, 부유한 농가가 많았다. 유교숭상사상이 짙은 마을이며 남평 문씨, 청도 김씨 등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이 마을에 태광산업(반여 1동 850번지)이 들어와 장산속 서당과 담장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1960년 후반부터 공장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 중리마을 아래쪽에 '새로운 마을'이 생겨 신촌新村이라 불렀다. 이곳은 반여동의 상가 중심지로 중리시장이 개장되면서 다방 등 위락시설이 많아졌다. 동양고무㈜, 흥아다이어, 성요사 등 기업체도 이 마을에 자리 잡았다. 옛날 질그릇이나 옹기를 구운 곳이라 고기등吉器廳이란 지명이 붙었는데, 8·15 광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5, 6호의 농가가 농사로 생활을 이어온 한적한 곳이었다. 6·25전쟁 때 포로수용소가 3년간 있다가 거제도도로 이전했다. 고기등마을에는 주민센터, 삼해공업(주), 성림제강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7~1981년)과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될 때, 반여동은 1980년 4월 1일 준공업지구(제9630호)로 지정되었다. 무정마을에는 이때 대우실업, 삼립식품, 우성식품, (주)기린, 성철사, 한국수출포장 등 공장이 들어섰다. 반여동 서쪽 수영강 건너편의 삼어마을에도 우후죽순처럼 공장이 늘어나 경제 건설의 공장 마을이 되었다. 삼공피혁, 프리나사료, 우성화학, 범양사, 삼화방직 등이 이를 대변한다. 반여동은 50여 개의 공장이 밀집했는데 섬유, 식품, 봉제품 등 기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 여성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여초女超 현상이 두드러졌다. 2000년대부터 공장이 하나둘 타지로 이전함에 따라 그 부지가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하며 주거지가 되었다.

## 명당의 기운이 서리다



**반여동** 반여동 마을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상리上里마을 뒷산 투구봉 밑에는 '장군이 지휘하는 장군대좌 명당'이 있었다. 마을 앞 풍산금속(조병창) 관사 자리는 병사들의 놀이터(병락갓), 그 앞에 낮은 대臺는 군량미를 쌓아 놓는 군량대, 장군이 쓰는 인장을 닮은 바위인 인반석, 그 밑을 흐르는 내천이 군량소의 군사 양식이 되는 못이다. 앞쪽으로 마주한 중군진산, 북쪽 석대동의 군마가 달리는 모습을 한 추마산, 회동수원지 동북에 기차산 등이

모두 장군대좌를 두고 붙여진 지명임을 봤을 때, 반여는 대표적인 명당으로 이름나 있었다.



반여동 상리마을



1980년대 준공업지구에 위치한 삼해공업 (현재 대림아파트 자리)

# 평천들

조선총독부는 1919년부터 1924년까지 산림 임야 조사 사업을 마친 뒤 1930년대 수영강 제방 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수영강변은 갈대와 웅덩이로 이루어진 철새 도래지였으나, 일본 사람인 평천은 고기등마을에서 왕자 아파트 무정마을까지 제방을 쌓고 큰 들판을 조성했다. 이 작업을 위해 마을 부역인을 강제로 동원하여 정사각형의 농토를 만들고, 지금의 삼어마을 세월교에서 남서방향으로 보(淤, 양쪽 돌을 쌓아 물이 흐르는 개울)를 만들어 농수로 사용했다. 삼어마을에 7대째 살아온 박희진(84세) 씨는 마을 부역인으로 목도를 매고 돌을 옮겨 보를 쌓았고 이곳 명칭이 '평천들'이라 증언했다. 일본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어 소작료인 쌀을 수탈해간 현상이었다.

광복이 되자 소작인들은 소작해온 농토를 모두 자기 것으로 차지했다. 1980년 준공업지구가 되자 '평천들'은 공장 대지로 변했으며, 이후 공장이 이전되면서 주거지로 탈바꿈했다. 당시 성요사 자리에는 롯데아파트, 삼해공업은 대림아파트, 대우실업은 꿈에그린아파트가 자리해있다.

# 부산포로수용소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인 마산, 대구, 포항 이남만 남았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낙동강 전선의 반격이 이루어지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후 포로가 급증하면서 부산, 거제도, 마산 등에 포로수용소가 생겨났는데, 지금 아시안게임선수촌 아파트가 옛 포로수용소 자리다. 당시 논과 밭, 임야 3만 평의 토지를 징발하여 수용소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 반여동 고분군

삼어마을은 반여동 고분군이 자리 잡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이다. 뒷산인 중군진산과 반여 창신아파트(반여4동 산 345, 345-1번지) 일대는 구릉 언덕으로 청동기시대의 생활상과 가야시대 전기부터 중후기까지 가야고분의 변천상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복천동 연산동 고분군과 아울러 위치적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효자들이 살던 곳

**석대동** '석대'라는 명칭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돌대'라고도 불렀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석대천과 추마산 기슭 대리골에서 흘러 온 하천이 석대교(구 석대동사무소 앞)를 지나는데, 이곳에 반석이 깔려있는 높은 너럭바위가 있어 '석대'라 불렀다. 석대를 기점으로 위쪽에 있는 마을을 상리(윗마을)마을, 아래를 하리(아랫마을) 마을이라 했다.



반여고분1호 주거지



1970년대 석대화체단지



석대마을

# 영양 천씨 정려각

석대동 일원은 예부터 효자촌이라 불렸다. 석대동 동편 산기슭에 위치한 5호자 1호부 정려각이 그 증거다. 이 비석은 효자 천성태(1717~1789), 그 아들 세모(1739~1810), 손자 술운(1767~1835), 증손 상련(1795~?), 현손 우형(1844~1886) 등 다섯 효자와 우형의 처인 효부 김해김씨 등 석대동 영양천씨 가문의 다섯 효자와 한 효부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영양천씨 문중은 매년 5월 5일 정려각에서 향사를 받들고 있으며, 2006년에는 표창완의문, 효행 청원서와 행정문서 110여 점, 호구단자 120여 점, 교지류 등을 부산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는 왕에 대한 충성보다 부모에 대한 효를 더 높이 평가했던 조선시대 효행정책을 알 수 있는 맥락이며, 석대가 효자마을임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다.

# 하리마을(석대동)

이 마을에 정착한 영양천씨는 임진왜란(1592년) 때 조선을 구한 명나라 장수 화산군 총장공 천만리장군의 후손들이다. 병자호란(1636년) 때 조선에 귀화한 명군의 후손을 잡아오라는 명령 때문에 동래 석대로 피난 온 천찬석이 하리마을의 조상이다. 그는 광주부윤, 안악군수, 황주목사 등을 일임했던 화려했던 시절을 있고 깊은 산골 촌부가 되어 손수 기와를 구워 집을 지었다. 500년 된 이팝나무가 서 있는 영양천씨 종택(반송1동 455번지)이 바로 그곳이다. 1,443평에 안채, 사랑채, 별채, 마구간, 방앗간 등을 갖춘 저택으로 37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소나무숲이 터널을 이루다

**반송동** 반송마을은 해운대구 반송2동 1통 지역 일대로 아파트로 둘러싸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반송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을이라 하여 분동, 봉리마을, 혹은 웃반송이라고도 한다. 지명인 '반송(盤松)'은 본래 소나무의 한 품종으로, 반석이 널리 깔려 있고 송림이 울창하다고 하여 지어졌다. 옛 운봉초등학교(반송 2동 229번지) 일대는 200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숲이 터널을 이뤄 한낮에도 촛불을 켜고 지날 정도였다. 지금은 소나무 몇 그루만이 반송마을 입구에 서서 그 옛날의 반송을 대표하고 있다.



삼절사



반송마을

# 삼절사

삼절사(반송2동 143번지)는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남원양씨 3인인 양지, 양조한, 양통한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양지는(1533~1592)는 경기도 광주군수로 부임해 임진왜란 때 성을 지켰으며, 양조한(1555~1592)은 향교에 모셔진 성현들의 위패를 성내의 정원루에 봉안했다. 양조한의 아우인 양통한(1559~?)은 난을 피해 두 아들과 함께 창녕 화왕산성에서 의병활동 중 순절했다고 전해진다.

\* 부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호

# 신작로 개통

일제강점기 때인 1931년 동래에서 기장으로 가는 신작로가 개통되면서 자동차가 다니게 되었다. 이는 석대의 불근디(반송 석표 왼쪽 옹기골), 새지골, 제공골 등의 돌을 깨서 만들었다. 신작로 개통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리마을로 이주해 오면서 마을은 크게 발전했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는 남원양씨가 20호를 이룬 집성촌이었다. 지금은 기장으로 가는 도로변이 빌딩과 버스종점으로 변화가를 이루고 있다.

# 석대에서 꽃길을 걷다 석대화훼단지의 어제와 오늘

움츠렸던 계절이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찾아오면 덩달아 바빠지는 곳이 있다.

바로 동래에서 반송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석대화훼단지다.

석대천 주변 약 5천여 평의 면적에 푸릇푸릇한 식물을 품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곳.

이곳은 도시에서 보기 힘든 비닐하우스와 수백 가지 품종의 식물, 그리고 따뜻하고 정겨운 사람냄새로 가득하다.



## 사람과 꽃이 아름다운 곳

주말이 되면 석대화훼단지는 꽃과 나무를 사러 온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촘촘하게 늘어진 비닐하우스 농원 앞 좌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진열되어 있다. 봄이 시작되는 2월부터 가족의 달 5월까지의 석대화훼단지가 가장 바쁜 기간이다. 추운 계절을 지나 따뜻해진 봄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이 푸르른 식물을 구경하러 이곳을 찾기 때문이다.

석대화훼단지는 사람과 꽃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낸다. 집에서 재배할 상추 모종을 사러 온 할머니부터 인테리어를 위해 화분을 구매하는 신혼부부, 체험학습 준비물로 방울토마토를 사러 온 어린이까지. 석대화훼단지의 정겨운 분위기는 사람과 꽃이 함께할 때 더 빛을 발한다.

올해 확산된 코로나19는 석대화훼단지 풍경을 바꿔놓기도 했다. 가장 손님이 많이 찾던 봄의 시작에 발길이 뜰 끊긴 석대화훼단지의 모습은 오랜 기간 장사를 해온 상인들에게도 낯선 풍경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된 곳 역시 화훼단지다.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라 화훼단지로 나들이를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실내에 식물을 들이기 위해서 석대화훼단지를 찾았기 때문이다.



여릴 때부터 식물을 사야 할 땐 항상 석대화훼단지를 찾았어요.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자주 오시던 곳이라 자연스럽게 찾은 것 같아요. 친구의 창업을 축하해주기 위해 선물한 화분도 여기서 구매했어요.

— 안보배 (27, 직장인)





### 석대화훼단지 찾는 이유

석대화훼단지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약 100여 개의 농원이 큰 단지를 이루고 있어 수백 가지 품종의 식물을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또 상인들이 농장에서 고른 싱싱한 식물을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적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석대화훼단지에 위치한 농원이 모두 비닐하우스라는 점도 좋은 식물을 제공하는 비결이다. 비닐하우스는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춰준다. 내부의 천고가 높고 바람이 잘 들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덕분이다. 또 직사광선을 비닐로 한 겹 걸러내 주어 유리창만으로 햇빛을 받는 건물에 비해 식물의 광합성도 활발하다.

최근 실내공기 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테리어를 위해 화훼류 식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보기에도 좋고 공기정화 기능까지 있는 식물이 인기다. 석대화훼단지에서 많이 팔리는 식물은 몬스테라와 아레카야자, 올리브나무 등이다. 가정에서 미니텃밭을 가꾸 채소를 키워 먹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재배가 가능한 상추와 방울토마토, 고추 등의 모종이 잘 팔린다.



우리 집 식물은 다 여기서 샀어요. 단골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식물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고 죽어가는 식물을 가지고 가면 관리도 잘해줘서 매번 거기만 가요.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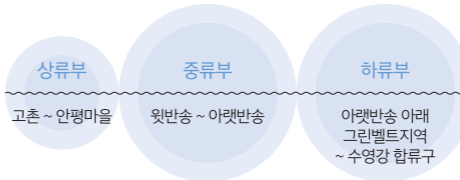
김영주(38, 주부)

### 오염된 석대천에서 꽃피는 공간으로

석대동은 원래 마을 전체가 평평한 분지였다 마을 앞을 가르는 석대천 덕분에 논농사가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석대천의 상류가 철거민 정책이주지로 개발되면서 생활오수가 하천을 오염시켰고,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하류부로 흘러들어왔다. 석대천 고각 아래로 새까맣게 썩은 하수가 유입됐고, 자연형 하천인 하류부의 수질은 악취를 내뿜을 정도로 오염됐다. 당시 석대천은 반송동 주민의 생활오수가 모이는 거대한 하수구였다.

농토가 점차 도심과 가까워지면서 흘러드는 생활하수 등으로 농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지만,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하류부 지역의 땅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없었다. 이에 70년대 후반부터 농민들은 반송로변을 따라 비닐하우스를 조성했고, 수익성이 좋은 화훼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980년 부산시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꽃단지를 이루게 된 것이 오늘날 석대화훼단지에 이르렀다.

과거 생태친 생태



### 주민과 상인들의 삶의 터전

예부터 석대천은 논농사를 짓는 농부와 주민들의 삶 한가운 데를 관통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석대화훼단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석대화훼단지가 그들의 삶 그 자체라고 말한다. 석대화훼단지 상인들 중 대부분은 20~30년 동안 화훼 장사를 해온 베테랑들이다. 석대화훼단지에서 일하면서 자녀들의 학교부터 결혼까지 보낸 사람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이곳은 그들에게 있어 터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상인들에게는 석대화훼단지가 집이자 터전이었다 시절도 있었다. 365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안에 건물을 지어 생활하는 상인들도 많았다. 하지만 2014년 장마철 폭우로 인한 석대천의 범람으로 화훼단지 1ha가 침수를 겪은 이후부터는 비닐하우스 내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석대화훼단지는 상인들에게는 물론 손님들에게도 추억과 일상을 함께한 곳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는다. 지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기 위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손님들은 이곳에 들러 식물을 사간다. 꼭 꽃을 사지 않더라도 사계절 언제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선물 같은 공간으로 때로는 위로를 받고 정을 나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치는 공간이자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석대화훼단지. 사람과 꽃이 함께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석대화훼단지는 오늘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 봄봄화원

강민경, 강경미 자매

\_\_\_\_\_ 석대화훼단지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가요?

출산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여름에 친언니와 함께 석대화훼단지에 가게를 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저희 집 베란다에는 어머니가 키우는 식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 밑에서 식물 관리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워왔기 때문에 농원 일을 시작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또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주변 상인 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대부분 50~60대 어머니, 아버지라서 아기도 손주처럼 돌봐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010-3997-3894

\_\_\_\_\_ 농원에서 일하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운 곳에서 일한다는 게 가장 힘들죠. 하지만 식물을 가꾸는 동안 힐링도 되고, 손님들이 만족하신 뒤 재방문해 주시거나 지인들을 데려오실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른 곳보다 더 독특한 식물, 더 예쁜 화분과 장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동농원

김명례, 김병태 부부

\_\_\_\_\_ 언제부터 석대화훼단지에서 일하셨나요?

27년 전 남편과 결혼해서 석대화훼단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학교에서 조경을 전공해서 이곳에 실습을 나와 일하다가 사업을 시작했구요. 석대화훼단지는 스물여섯부터 제 청춘을 다 바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주말에도 일하다 보니 아이들과 손잡고 어디 한번 놀러간 적이 없는 게 제일 마음 아파요. 그 흔한 가족사진도 하나 없어요. 그래도 여기서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고 올해는 딸이 시집도 가네요.

\_\_\_\_\_ 오랜 기간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게는 모종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원래는 꽃집을 했는데 15년 전부터 모종으로 바꿨죠. 경기가 어려



워지면 손님들이 꽃은 안 사도 모종은 키워서 먹을 수 있으니 사가시더라고요. 손님들 중에는 재배 후 남은 과일, 채소를 가져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구입한 모종이 잘 자란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는 손님들도 있는데 그런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열매가 잘 열리는 좋은 종자를 판매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 010-3012-9638

## 고향사람의 리스타트 Re: start!

**고향의 변화 그리고,  
고향을 품은 사람들의 리스타트**

고향과 장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듯,  
고향사람 역시 그 속에서 함께 변화하며 꿈을 진화시켜 나갑니다.  
부산의 길을 열어왔고, 또 다시 열어갈 우리네 고향사람들  
그 따뜻한 설렘에 반갑게 인사하며  
그들의 반짝이는 열정을 들여다봅니다.

- 이호섭** 예술인이자 디렉터로, 다시 시작한 예술인의 삶
- 조태영** 새로운 발효 전통을 이어가는 일
- 김민정** 새로운 시선, 부산의 기록이 되다
- 바다가 리서치** 바다가 사람들의 '리스타트'
- 양현태** 지금부터가 진정한 전성기!
- 김도연&김수진** 나의 새 출발, 너의 새 출발

# 예술인이자 디렉터로, 다시 시작한 예술인의 삶

이호섭 공동대표  
예술지구p

# ADP 2

부산 회동동 금사공단 일대 공장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한 예술지구p. 생산시설이 문을 닫고 유휴부지로 남게 된 산업 구조물을 재해석하여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린 공간에는 예술이라는 무한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부산과 부산지역 예술인 그리고 예술지구p. 예술인이자 디렉터로, 그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한 이호섭 대표를 만났다.



## 과거 낡은 공장, 예술지구p로의 새로운 시작

낡고 오래되어 방치된 공간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부산 금정구 금사공단의 옥성화학(주) 물류창고는 한때 폐 공간이 될 뻔했지만, 몇 년 후 도시의 재생과 예술의 자생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공장이 이전하고 물류창고만 행하니 자리를 지키던 터. 그마저도 고가도로가 들어서면서 일부 공간이 잘려나가 효용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술지구p는 과감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등장했다.

“우리가 서 있는 건물은 본래 단층 창고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고, 동선을 봤을 때도 비효율적인 공간이었죠. 맞은편 건물도 마찬가지로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볼까 고민하다가 예술공간으로의 변모로 가닥이 잡혔던 거죠.”

이호섭 예술지구p 공동대표이자 공연기획 전방위 예술극장 ‘금사락’ 대표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술지구p의 탄생을 되짚으며 이곳이 어떻게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옥성화학(주)은 부산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오래전부터 지역 예술인을 후원해왔다. 그런 기업이 공장의 유휴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볼 것을 지역 예술인들에게 제안했고, 약 1년간 부산지역 예술인이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예술지구p가 탄생했다.

“한때는 저도 음악에 심취하던 예술가였고, 지금도 여전히 예술가예요. 다만, 현실에 발을 두고 음악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르죠. 예술지구p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도 좋겠다고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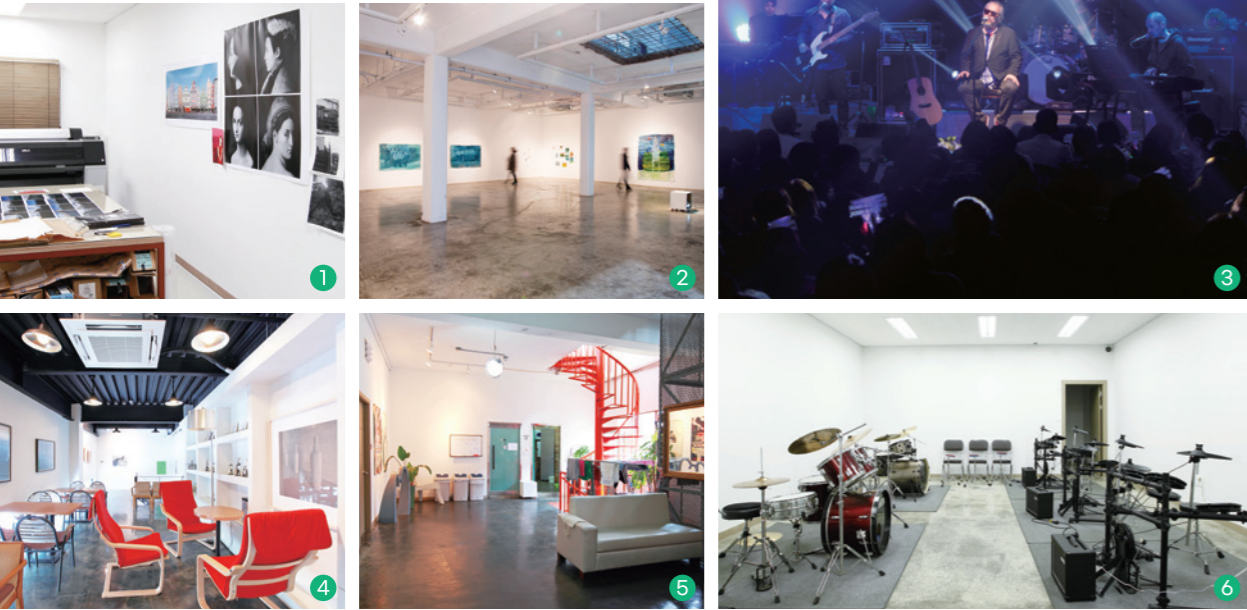
먹은 건 ‘공연장’이 들어설 거라는 얘기 때문이었어요.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음악을 하는 후배들이 조금은 편하게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었죠.”

부산을 벗어나 타지에서 생업을 이어가며 예술하던 이 대표에게 예술지구p의 운영은 새로운 도전이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더욱이 과거 낡은 공장이었던 터에 새로이 예술공간을 짓는 일은 실행하기 전엔 다소 난감한 과제였다고.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창고 형태를 보고서 든 생각이 ‘난감한데!’였어요. 특히나 회동동은 부산에서도 꽤 외곽에 자리한 곳이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운영한다는 게 아주 의미있는 일이잖아요. 그 생각에 도전해보자 싶었죠.”

## 예술인과 예술인,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전과 상생

이처럼 뜻이 맞는 예술인들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지역 예술가를 위한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공간을 목표로 문을 연 예술지구p는 고가도로 공사로 삼각형이 된 빈 건물은 예술가 레지던스와 전시장이 있는 ‘창작공간b’로, 단층 창고는 철거 후 신축해 예술극장 ‘금사락’과 사진 및 미디어 공간 ‘포톤’으로 재탄생시켰다.

이곳에는 두 개 전시장과 공연장(금사락 홀), 창작스튜디오,



① 디지털랩실(사진미디어공간 포톤) ② 제1전시관(창작공간p) ③ 공연장(금사락) ④ 아트숍 카페 ⑤ 레지던스 스튜디오 로비 ⑥ 드럼 강의실

강의실, 포토스튜디오, 디지털 입·출력실 등이 들어섰고 작가, 뮤지션, 관계자 등 3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인 'G하우스'가 자리했다. 다양한 장르의 개별단체가 모여 유기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창작공간과 주거공간을 한데서 모두 누리며 오로지 창작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곳 예술지구p는 공간을 대표하는 장르별 디렉터가 있는 공동체예요. 예술인 세 명이 독립적으로 ‘창작공간p’와 ‘금사락’, 그리고 ‘포톤’을 운영하죠.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건 디렉터들 모두 예술에 대한 시선과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술지구p의 방식은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다. 기업과 예술인의 조합이라면, 자칫 기업홍보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흐르기 쉽지만, 실적에 치중한 것이 아닌 ‘지역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이라는 본질을 흐트리지 않는 지원이었기에 예술 지구p는 독자적인 운영방식을 고수할 수 있었다.

그중 금사락 홀의 경우, 이호섭 대표의 음악적인 이해가 기반이 됐다. 음악을 업(業)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밴드 <모나드>로 활동하면서 음악인으로서의 삶은 줄곧 이어온 터다. 게다가 현장 소장으로서 일하며 얻은 건축학적 지식까지도 예술지구p 탄생에 한몫했다.

“국내의 공연장을 보면 처음부터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곳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 흡음이나 음향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금사락은 오로지 음악을 위해서 실현한 공간이에요. 공간을 보시면 층고만 해도 6m가 넘죠. 시각적으로도 개방감과 풍부한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어요.”

소위 ‘진짜’ 음악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는 금사락에서는 국내 락밴드 공연은 물론 부산지역의 실력 있는 뮤지션 지원과 신인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에도 계속될 선순환 구조**

이호섭 대표가 이곳의 운영을 맡은 지도 어언 7년째. 이 대표는 이곳에 처음 발 디딘 순간을 떠올리며 공간에 대한 애정을 내비친다.

“예술지구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예요. 이곳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지구’가 된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이제는 신진작가들뿐만 아니라 기성작가분들에게도

공간을 내어줄 계획입니다. 돌파구를 찾고 싶을 때,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누군가는 예술지구p의 위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이호섭 대표는 선보이는 국내외 작품과 공연의 질이 높다면 방문객은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다독인다.

“저 또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듯이 누군가는 또 뒤를 이어나가겠죠. 예술이 자생하기란 쉽지 않지만, 예술지구p는 예술인이 예술인을 지원하는 구조로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왔어요. 예술지구p의 목표는 결국 자생이에요. 우리는 먼 미래에도 ‘살아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술공간으로 이 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분주히 지나가는 차들과 기계음만 가득하던 터에 새로운 예술 공간을 덧입히기 위해 세밀한 작업을 거친 곳, ‘예술지구p’는 이제는 공단을 넘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호섭 대표는 지금도 여전히 예술지구p에서 예술인이자 디렉터로 부산지역 예술을 위한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다. 지역 예술공간의 존폐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이어진 예술지구p, 그리고 그의 예술을 향한 걸음은 예술인과의 상생과 예술만의 자생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예술지구p**

2013년 12월 부산 금정구 금사공단 지역의 (주)옥성화학 소유의 물류창고 2개 동을 리노베이션하여 대지 1464.47㎡에 신축 3F[연면적 760㎡] 및 개조 3F[연면적 1018.2㎡] 하여 설립된 복합예술공간. 시각미술, 사진, 미디어아트, 창작 스튜디오, 공연예술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운영하는 공간으로 전시장, 공연장, 레지던스 스튜디오 등을 두루 갖추었다.

- + **창작공간p** 순수미술분야.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전시 기획과 부산의 신진작가 발굴 및 발표의 장
- 금사락** 전방위 예술극장. 공연장(스탠딩 500명 수용 공간, 250좌석), 스튜디오(합주실, 녹음시설, 지역인디 뮤지션을 위한 공간), 레코딩룸, 악기 레슨 등 대중음악을 지원하는 공간
- 포톤** 사진, 미디어 등 매체미술 전시 기획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예술지구p의 리스따뜨,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 📍 부산 금정구 개좌로 162 옥성화학
- ☎ 070-4322-3113
- 🌐 <http://artdp.org>





# 새로운 발효 전통을 이어가는 일

조태영 대표  
(주)제이케이크래프트

집마다 가보처럼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를 따라 술을 빚어온 우리네 전통 가양주(家釀酒) 문화.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안타깝게 사라진 이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색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이가 있다. 성공적이었던 소물리에 생활을 접고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전통주 사업을 시작한 조태영 대표다. 전통적인 제조법에 자신만의 양조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산의 맛을 빚어가는 그의 또 다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과거와 현재가 함께 빚어낸 우리 술 '기다림(gidarim)'

사직동 골목길에 위치한 (주)제이케이크래프트의 하루는 오전부터 분주하다. 1층 양조장에서 술을 빚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기다림34.' 조태영 대표가 34살이 되던 해 출시된 점과 회사 주소가 34번 지인 점이 반영돼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현재까지 출시된 기다림 시리즈는 청주(淸酒)를 포함해 총 4종. 하지만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무궁무진하다.



“제 전공이 양조학이에요. 주종을 막론하고 집에서 직접 주류를 만들어보는 게 취미이기도 하고요. 옛 문헌에 등장하는 술 이야기도 찾아봅니다. 거기서 과거 조상들의 양조법을 배우고, 기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쌓아온 양조기술을 토대로 나머지 과정을 추론해서 적용시켜요. 이 과정을 거쳐 기다림이 완성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지혜가 함께 완성시킨 술. 그래서일까, 기다림 시리즈는 맛이 유난히 부드럽다. 그는 이 특별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 무려 100일의 시간을 투자한다. 일반적인 막걸리 생산기간에 비하면 몇 배나 긴 시간이다. 그동안 쌓아온 독자적 기술을 녹여내는 시간인 것이다. 세분된 발효와 숙성과정을 지나는 동안 향미는 더해지고 숙취유발 물질은 빠져나간다. 새로운 부산의 맛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 와인 전문가에서 전통주 전문가로, 우연한 계기가 바꾼 미래

지금이야 전통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조태영 대표는 와인 전문 소물리에로 주류업에 발을 담갔다.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더 잘하고 싶었던 젊은 시절의 그는 제대 후 머리가 채 자라기도 전 일본의 식음료전문기술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열정이 뜨거웠다.

“처음 관심을 가졌던 건 칵테일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류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레 와인을 공부했고, 또 일본에 머물렀으니 사케도 공부하게 됐죠.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 같아요.”

소물리에로 활동할 당시의 그는 교육이나 강의, 각종 기업 행사에 불려 다닐 정도로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때가 고작 29살 무렵이니 제법 이른 나이에 안정 궤도에 진입한 셈. 하지만 그는 다시 모험을 선택했다. 해외 양조장(와이너리)과 양조전문대학원에 지원한 것이다. 결과는 모두 합격.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선택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다. 재미로 수강했던 전통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편견을 깨는 다양한 우리 술을 접하며 잠재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평소 조주(造酒)가 취미인 만큼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부각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그렇게 열정 하나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로 벌써 4년째. 그는 오늘도 술을 빚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 옛것을 발전시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 (주)제이케이크래프트의 사업군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뉜다. 전통주 분야와 비누, 샴푸 등을 제작하는 생활제품 분야다. 전혀 다른 분야인 것 같지만 결국 맥락은 같다. '기다림'을 만들고 남은 부산물에서 호모, 유산균 등의 유효 미생물을 추출해 '기다려온' 생활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소비자 반응이 좋아 백화점과 면세점, 마트에까지 입점한 상태다.

“제가 화학제품에 예민한 편이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다려온' 제품들은 더 깊이 연구해서 시중에 내놓은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획한 건 아닌데 좋아하는 일을 좇다 보니 여기까지 확장하게 되었네요.”

재미있을 것 같으면 일단 하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공감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을 때도 있다는 그는 지금도 새로운 무언가를 진행 중이다. 발효 제품군 생산 후 남은 것들로 가축용 사료를 만드는 R&D 사업이다.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부가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 그는 앞으로도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고 독특한 것,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헤매는 순간도 있겠지만 실패가 있어야 배움도 있음을 알기에 두렵지 않다고. 우리 고유의 발효문화를 계승해 새로운 전통을 이끄는 중인 조태영 대표. 그가 몸소 보여주는 온고이지사(溫故而知新)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까. 그 행보가 무척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조태영 대표의 리스따뜨,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brewery\_gidarim





# 새로운 시선, 부산의 기록이 되다

김민정 작가

고층 건물이 즐비한 부산의 도심. 작가의 시선은 도심에 머물렀다가, 나아가 개발로 인해 허물고 흩어지는 부산 외곽의 어느 마을에 닿았다. 시선을 새롭게 바꾸자, 깎이고 닳을지언정 제자리를 지키는 터와 공간과 사람이 보였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에 관해 주목하기 시작한 김민정 작가.  
글과 그림으로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김민정 작가의 새로운 발걸음을 담았다.

**매축지** 바닷가나 강가 따위의 우묵한 곳을 메워서 물로 만든 땅.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군마 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 마구간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부산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이 마구간을 칸칸이 개조하여 살았던 곳이다.

##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부산의 일상

모든 건축물은 목재와 철,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대상일 뿐이지만, 하나둘 사람이 살고 시간을 공유하는 순간, 의미를 담은 공간이 된다. 그래서 건축물은 때때로 물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화학적인 변화도 일으킨다. 구성원 간의 소통 혹은 단절, 경험의 공유 혹은 부재 등 말이다.  
김민정 작가는 부산의 오래된 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어느 순간 너무나도 쉽게 잊힐 기억을 붙잡기 위한 것이요,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일상의 역사가 되는 것들에 관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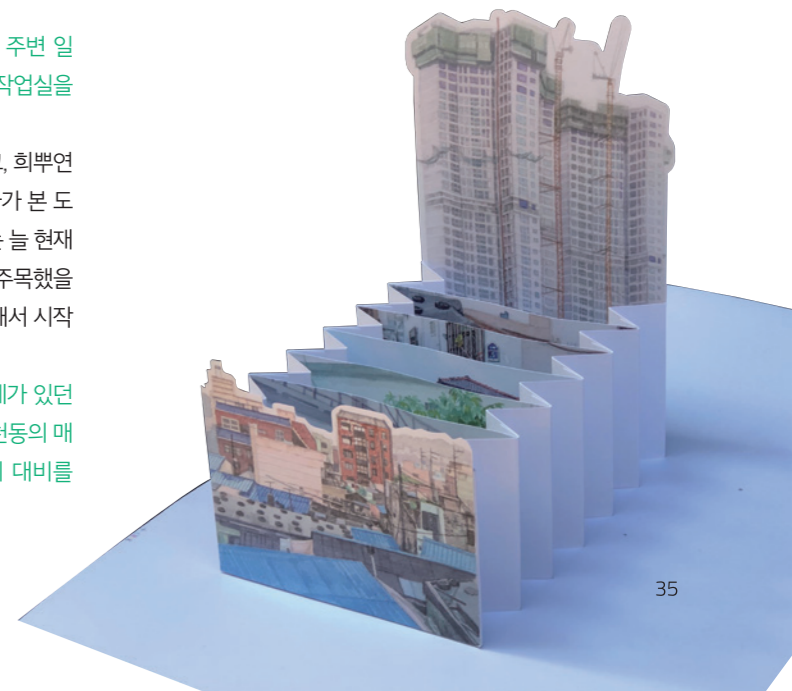
“저는 서양화 전공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목적 없이 주변 일상을 그렸어요. 창밖으로 무심코 본 도심 풍경이며 작업실을 오가며 본 일상이 주제가 됐죠.”

일상을 그리다 보니 주로 도시의 건물이 소재가 됐고, 희뿌연 안개가 건물을 둘러싼 형상이 캔버스에 담겼다. 작가가 본 도심에서 ‘개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변화는 늘 현재 진행이었다. 그러다 공사 이면(異面)에 있는 집들에 주목했을 때, 작가의 시선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작가의 도전은 새로운 작품세계의 신호탄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사 현장은 대부분 오래된 동네가 있던 터였어요. 그렇게 처음 붓을 든 대상이 부산 동구 좌천동의 매축지 마을이었어요. 그 동네에 가만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매축지 마을은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거쳐 이제는 도심 한 편에 조용히 자리한 동네였다. 섬 같은 동네가 고층 아파트와 대비되어 초현실적인 느낌을 풍긴다는 것이 작가에게는 묘하게 슬프고도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매축지 마을의 풍경을 담은 여러 편의 수채화와 매축지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작가의 첫 독립 출판물인 「도시 속의 섬」으로 탄생했다.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작업은 또 다른 외곽 마을인 감만동으로 이어졌다.

매축지 마을(입체카드)



“부산 남구 감만동 일대를 그린 건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어요. 부산문화재단의 기획자로부터 감만동 전체 지도를 그려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죠. 곧 재개발이 이뤄질 동네를 다양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취지였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오래-감만」이에요. 감만동 지도 작업 과정을 모은 책이고, 책 표지를 펼치면 감만동 전체 지도가 돼요. 사라지기 전 감만동의 모습을 담은 의미 있는 작업이죠.”

그렇게 감만동 마을 전체의 형태와 골목길 자리가 한눈에 담긴 모습이 완성됐다. 부산의 오래된 마을이 어떻게 재해석 되어 독창적인 기록물로 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문 도전**

지난 1년간 작가는 마을이라는 덩어리에서 더 세분화된 대상에 주목했다. 「사라지는 집 2019」이라는 주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주택에 몰두했다. 주택 하나하나를 주목해 그렸다는 점에서 그간의 매축지 마을, 감만동 마을의 작업과는 달랐다. 선은 더욱 분명해졌고, 대상도 더욱 뚜렷해졌다.

감만동 전체 지도(독립 출판물 「오래-감만」)



매축지 마을 전경(독립 출판물 「도시 속의 섬」)



「사라지는 집 2019」

작가의 집들에 대한 기록은 도시의 주거 형태에 대한 관찰로 이어졌다. 수십 채의 집이 모여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고층 아파트, 그리고 과하지 않은 크기로 분절된 형태인 저층 주택. 어떠한 형태가 더 옳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언젠는 자연과 가까이 닿을 수 있고 '내 집'이라는 안도감을 후자가 더 강렬함이 분명했다.

“아직도 어릴 적 살던 집이 그대로인 분 계신가요? 예전에는 주로 맨션이나 주택 형태의 집이 많았죠.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공간이 사라지면 그 기억도 빨리 사라져요. 추억을 되짚을 수 있는 매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안고 현재를 사는 건데, 낡은 것을 뭐든 쉽게 허물어버린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이에요.”

이것은 부산에서 나고 자란 작가의 경험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낸 광안동 맨션이 재개발되면서 작가는 어린 시절을 추억할 공간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우리가 잠시 어떠한 공간을 떠난다고 해도, 공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다면, 공간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면서 단단해진다. 그러나 효용성만을 따져 허물어버린 공간은 곧 기억의 부재로 이어진다.

“현재 집들에 대한 기록은 어쩌면 대중과 가까워지는 작업이에요. 도시에서 볼 법한 지극히 현실적인 풍경이고, 누구나 경험할 법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재개발 지역이나 이주민의 이야기가 전혀 동떨어진 세계의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누구나 내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내 공간을 허물어야 하는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부산의 지금을 더 많이 기록하고,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다. 캔버스에 물감이 찬찬히 스며드는 것처럼 작가가 카메라로 간간히 담아두었던 광안동 맨션은 울어름, <집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VR 영상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공간에 직접 들어가 집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도 새로운 도전인 것이다.

**멈추지 않을 작가의 시선과 새로운 기록**

작가는 ‘현재를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작가에게 현재란 사람, 일상, 나아가 도시 전체를 포함한 함축적인 의미다.

“지금 작업하는 건 방진막에 가려진 도시의 공사 현장이에요. 방진막을 성벽처럼 높게 치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무관심해져요. 공사가 끝나면 새 건물이 들어섰구나 하고 단순히 생각하죠. 우리가 그 너머의 다양한 삶과 사람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 중이에요.”



작가는 이제부터라도 도시에 비친 우리 모습과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당부한다. 낯음과 새로움의 조화, 소통의 단절이 아닌 상상, 도시와 사람을 위한 개발... 개발에 앞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확신에서다.

“가끔 작품을 보면서 ‘공사 현장을 왜 그리시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개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면 깊이 공감하시거든요. 앞으로도 작가로서 제가 사는 도시의 문화재, 공간, 사람 등을 새로운 시선으로 기록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평범한 일상의 역사이자 미래니까요.”

작가는 현재 부산 초량구의 정란각(등록문화재 제330호)을 그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여러 작가들과 협업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보전한 문화재를 기록하는 작업이다. 지금, 현재, 부산의 이야기라면 모두 작업물의 대상이 된다는 김민정 작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의 부산이 그의 작품에 담기게 될지 그 끝없는 도전을 기대해본다.

**김민정 작가**

- 개발로 인한 도시 풍경과 주거 환경의 변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유화, 수채화, 설치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 + 도시 속의 섬 2017(부산 동구 좌천동 매축지마을)
-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 2018(부산 남구 감만동)
- 사라지는 집 2019(부산 동래구 온천동마을)
- 영도 봉산마을 리서치 2019, 집의 기억(VR) 2020
- + 2008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대학 서양화 전공
- 2011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김민정 작가의 리스따뜨,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minjung\_kim\_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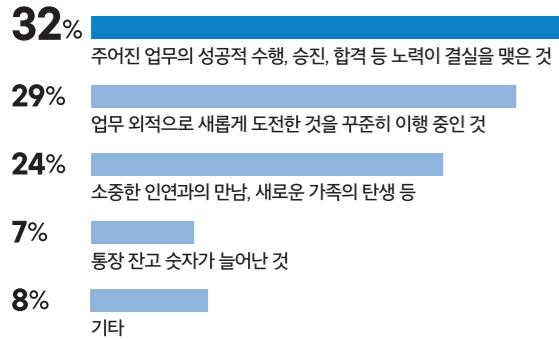
설문조사 대상: 바다가 임직원

# 바다가 사람들의 '리스타트' Re: Start

기장의 한적한 바다 마을이 부산의 대표 관광지 오시리아관광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시골벽적인 시장 상인과 꽃내음 가득한 동네도 이제 첨단산업단지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바다가'를 만나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채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 도심 속 공간들. 그곳에는 '바다가' 사람들의 뜨거운 고군분투가 담백하게 녹아 있다. 지금까지 부산의 새 출발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이번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우리 삶의 새 출발은 어떤 모습인가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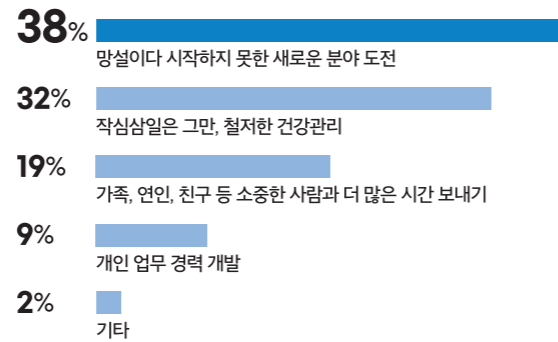
그동안의 나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고 싶은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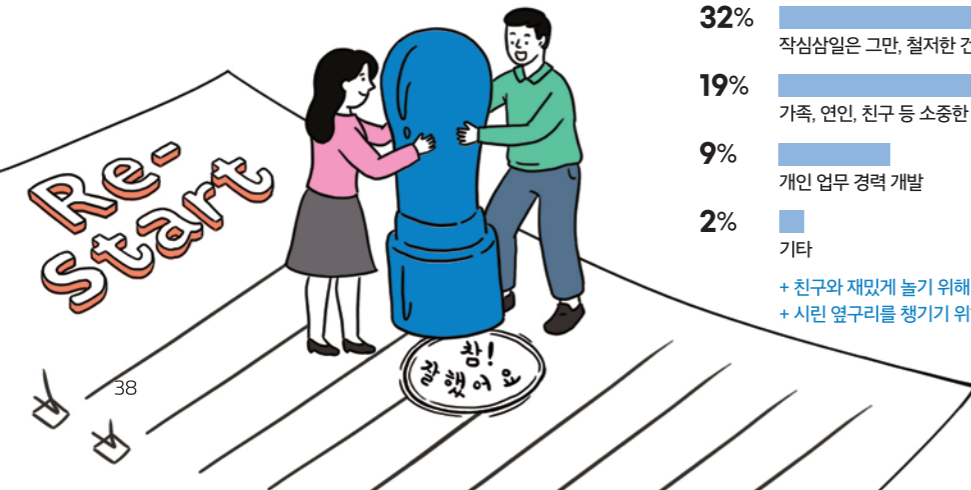
+ 혼란스러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일상 유지, 그리고 버티기  
+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선배들과 소소하게 파티를 열 수 있는 나만의 아지트를 만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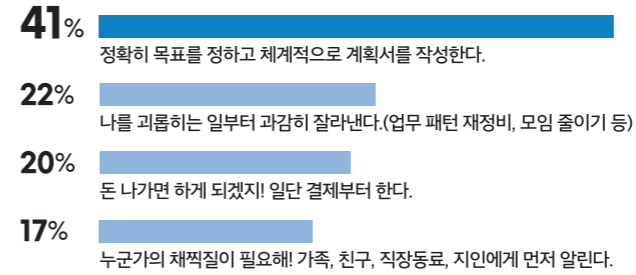
나의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 친구와 재밌게 놀기 위해 모바일 게임을 다시 시작  
+ 시린 옆구리를 챙기기 위한 솔로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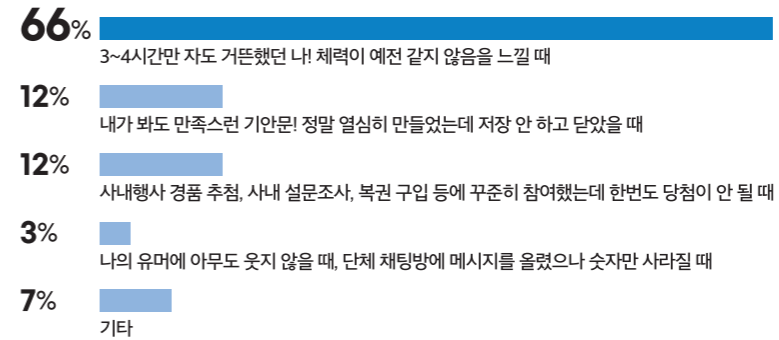


새로운 결심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4

다음 소소한 일상 중 새 출발이 가장 힘든 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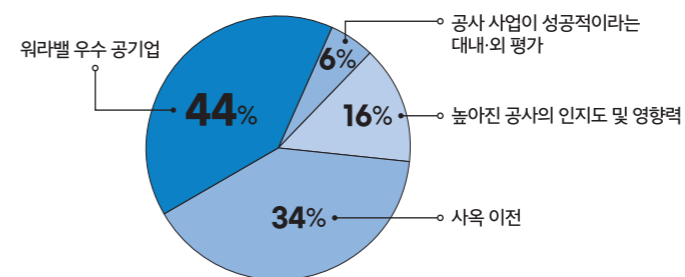


+ 업무, 취미활동을 할 때 열정이 예전 같이 불타오르지 않을 때  
+ 결혼을 했기에 더 이상 연애를 할 수 없다.  
+ 거듭된 작심삼일형 다시 시작으로 '또 시작은 해서 뭘 하나'라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이렇게 한평생 살다 가는 건가.  
+ 정말 원했던 목표가 희미해지고 나 스스로 나태해졌음을 느낄 때  
+ 누구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해 일을 했지만, '해주지 못한' 결과로만 평가받을 때



5

창립 30주년을 앞둔 '바다가'의 새 출발 중 가장 기대되는 모습은?



# 지금부터가 진정한 전성기!

양현태



1991년 4월 10일.

부산도시공사 양현태 처장이 입사한 해다. 같은 해 1월 25일 공사가 창립했으니 평생의 고락을 함께해온 것과 다름없다. 그런 그가 올해 6월말 정년퇴직과 함께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한다. 30여 년의 추억과 성장의 기록을 담고 새 출발선에 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부산도시공사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80년대 부산시교육청에 입사해 시설과 공무원으로 근무했어요. 당시 공립학교 건물 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사실 공사 규모가 작았어요. 교실 한 칸을 증축하는 일 등이었죠. 조금씩 회의감이 들 때쯤, 부산도시공사가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 신도시를 만드는 '인공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32살이었는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나도 저 일을 하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공사에 지원하게 됐고 다행히 합격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입사 후 처음 발령받은 부서는 어디였나요?

— 첫 발령을 받은 곳은 건축부였어요. 당시 공사가 정부 200만 호 주택건설을 담당했는데, 그중 학장지구 영구임대주택 공사감독을 맡았죠. 제가 공사에서 최초로 맡은 업무였습니다. 그땐 부장, 과장이 간부고 그 아래는 다 일반직원이었어요. 지금처럼 차장~대리라는 직급이 없었고 다 '기사'로 불렸어요. 물론 직급은 없어도 서열은 있었지만요.

당시 감독 업무는 어땠나요?

— 지금은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용역'을 많이 주지만, 그때만 해도 공사 직원들이 직접 감독 업무를 했어요. 학장지구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당시, 여러 건설회사가 참여하다 보니 총괄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더 중요했죠. 설계도면을 보고 제대로 시공하는지, 품질은 잘 지키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감독했어요. 철근 배근 검사부터 콘크리트 레미콘 염분 측정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대표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신다면요?

— 노태우 정권 시절,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 당시 학장지구, 개금2지구, 화명3지구를 맡았습니다. 이후에는 투자개발단(현재 미래전략실)에서 신사업 발굴을 4년 정도 했죠. 그때 발굴한 것이 정관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2007년에는 건축사업부(현재 주택사업처) 건축사업팀장으로 발령받아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관 추모공원, 문현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관리했죠.

업무를 하며 뿌듯했거나 벅찼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 아무래도 지역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씩 풀어가게 과정은 어려워도, 업무를 잘 마무리 지었을 때의 보람이 정말 컸어요. 그중에서도 정관 추모공원을 만들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 공원 인근 마을 이장단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추모공원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다 보니,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죠.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며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쾌감은 말로 다 못하는 것이죠.

부산도시공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 처음 발족했을 당시엔 인원이 많지 않았습디다. 지금은 조직 규모도 커졌고 전문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것이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거의 부산시 대행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공사 주도의 프로젝트로 자본을 투입해 경영해 나가고 있지요. 앞으로의 공사는 더 기대가 큼니다. 젊고 실력 있는 신입사원들의 강한 맨파워를 믿기 때문입니다.

(왼쪽부터) 이상철, 권영민, 박태연, 양현태, 이상재, 이상훈, 허민지



'나의 새 출발'은 어떤 모습인가요?

— 저는 지금부터가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이제야 내 의지가 반영된, 나만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아직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30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니 퇴직 후에도 비슷한 업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일을 계속하려면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파랑길 750km 완주를 계획하고 있어요. 부산 오륙도에서 출발해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총 50개 코스입니다. 아직 감포까지 밖에 못 가봤는데 이번에는 꼭 완주해서 저의 새 출발을 기념하겠습니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네요. 그동안 직장생활에서 회로애락을 느끼던 여러 과정과 순간들을 되짚어보게 되네요. 이젠 주관적인 생각인데, 요즘 직원들은 자신과 가정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때야 회사를 우선하는 시대였던 거고, 지금은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생각은 매일 함께 보내는 직장 동료는 가족과 다르 없다는 겁니다. 사내 취미활동 등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소통하다 보면 서로 애정을 나누게 되겠지요. 그럼 자연히 공사 발전을 위한 토론도 이뤄지고 공감대도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술자리를 좋아해 이런저런 자리에 많이 동석하는데, 몸은 힘들어도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즐겁더군요. 동료들과 더욱 깊게 마음을 나누면 회사생활도 더 즐거워질 겁니다.

대학 졸업 후 부산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두 사람이 있다. 각각 마케팅실과 주거복지사업처를 거쳐 현재 경영지원실에서 나란히 근무 중인 김도연, 김수진 씨다. 이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며 부산도시공사에 입사했을까? 열심히 일하는 지금이 나의 전성기라 칭하는 건강하고 유쾌한 두 청춘을 만나 그 속내를 들여다봤다.

부산도시공사에 입사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도연** 해외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현장실습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무역·물류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 업무환경이나 분위기가 무척 인상 깊어서 공기업 취업을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부산에 계속 거주하고 싶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부산도시공사가 딱 맞았죠.

**수진** 저는 입사 전 다른 곳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어요. 금융권이었는데 저한테 일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그만두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종착지가 부산도시공사였어요.

최종까지 합격했을 당시의 기분은 어땠나요?

**도연** 입사시험에 연이어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던 중, 부산도시공사 1차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꼭 붙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죠. 최종 합격을 조회할 때는 혹시나 해서 2차 시험결과 확인 때 앉았던 소파에서 이전과 똑같은 자세로 확인했어요. 다행히 최종까지 무사히 잘 넘겨서 설레는 마음이 컸죠.

**수진** 기대도 됐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두 번째 직장인데 혹시 여기서 나와 안 맞으면 어떡하나 생각했거든요. 업무도 잘 맞았지만, 무엇보다 동기들이 있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맡은 업무와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도연** 작년 2월 경영지원실로 발령받아 급여 업무를 담당했어요. 처음 맡았던 일이 연말정산이었는데 업무도 미숙했던 데다, 촉박한 신고기한까지 맞물려 정신이 아찔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수진** 저도 같은 실에서 급여와 복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바쁜 상반기를 보낸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 거의 매일 지침이 왔는데, 당장 내일부터 실행해야 하는 것들이라 보니 챙길 것도 많았고요. 재택근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까지 돌려야 해서 정말 혼돈상태였어요.

두 분은 공통적으로 급여 업무를 경험했네요. 이와 관련해 공사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도연** 연말정산이나 상여 시즌이 되면 문의가 많아요. 평소엔 가로로 나열되는 사내 메신저 창이, 메시지가 폭주할 때는 세로로 나열되죠. 이때가 그래요. 하루종일 답만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 날도 있어요. 이런 사정이 있으니 총무인사부에서 답변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진**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본적인 급여 계산은 돼요. 하지만 직원별로 업무 형태, 받는 수당 등이 다르니까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부분도 있어요. 전직원의 근무사항도 매번 다시 파악해야 하고요. 그래서 미리 이달 월급을 물어보셔도 당장 답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도연

인생은 새 출발의 연속입니다.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새 출발은 무엇인가요?

**도연** 온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으니까 몸이 안 좋아 지더라고요. 그래서 4월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깨나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근육까지 붙어서 점점 더 의욕이 생겨요. 앞으로 재활치료도 배워보고 싶어요.

**수진** 그동안 특별한 취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 중이에요. 지금은 기타를 배우고 있고 사내 온라인 교육을 통해 그림 수업도 듣고 있어요.

두 분이 생각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새 출발은 어떤 모습인가요?

**도연** 올 초에 1박 2일 '전직원 소통캠프'를 계획 중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게 되어서 대신 '직급별 소통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요. 선배는 후배의 입장에서, 후배는 선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런 교육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이것도 새 출발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수진** 지난 3여 년간 약 60여 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했어요. 기존 직원들과는 나이도, 직급도 달라서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업무방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소통, 교육 등을 통해 잘 헤쳐나간다면 이 자체로 새 출발이 될 수 있겠죠?



김수진



# 나의 새 출발,

‘월급주는 그녀들의 이야기’  
김도연 & 김수진

# 너의 새 출발

# 이웃 서면시장 한 바퀴

## 추억 그리고 꿈을 파는 시장

서면 1번가를 가로지르는 큰길(서면로)과 돼지국밥 가게가 밀집한 골목(서면로68번길) 사이로 오랜 세월 커다란 덩치를 지켜온 건물이 있다. 산업화 시절, 인근 상권을 휩쓸었던 서면시장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눈엔 그저 오래되어 빛바랜 건물로 비칠 뿐이지만, 전성기 무렵 서면시장은 핫플레이스 그 이상이었다. 장을 보는 아낙들과 근방에서 지나가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인물들, 그리고 교복 입은 학생들까지 세대와 계층을 불문한 이들이 몰려들었고 그만큼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진귀한 상품이 오갔다. 시대가 변하며 이제는 그 시절을 추억으로만 간직할 뿐이지만, 시장은 여전히 새로운 전성기를 꿈꾼다. 자꾸만 모습을 바꿔보는 건 그런 이유일 터. 오랜 상인들과 젊은 상인들이 어깨를 맞대고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서면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봤다.

코로나19로 시내가 텅비었던 시간,  
바다가 사람들은 서면시장과 약속을 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근대 역사를 따라 흘러온 서면시장의 옛 시간

서면시장의 역사는 부산의 근대화 역사에 맞물려 지금껏 흘러왔다. 현재의 상가건물형 시장으로 준공된 건 1970년. 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현재는 복개(覆蓋)되어 자취를 감춘 동천 주위로 물려든 피란민 중 일부가 이곳에 임시로 목조건물을 세워 장사를 시작한 것을 그 효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면시장이 모습을 드러낼 무렵의 서면은 현재와는 판이했다. 방사형 도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서면교차로에는 부산의 번영을 기원하는 부산탑이 우뚝하게 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으며, 현재 롯데백화점 자리에는 부산상업고등학교와 부전초등학교가 나란히 등지를 틀고 있었다. 덕분에 서면시장은 고급 식재료와 공산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뿐 아니라 고풍 배를 움켜쥐고 달려온 학생들이 한데 뒤섞여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당시 서면시장 1층은 야채, 과일, 생선, 육류 등의 식자재를 비롯해 꽃, 외제상품 판매점 등으로 가득했다. 한편에선 여전히 서면시장의 명물로 불리는 칼국수 가게들이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뺨속을 든든히 채웠다.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들어서면 그곳은 또 다른 세계였다. 한복, 양장, 포목 등 값나가는 상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다. 부자시장이라는 별칭이 괜한 말이 아니었을 정도로 좋은 상품들이 들어왔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다. 만드는 속도보다 팔리는 속도가 더 빠를 정도로 시장이 대호황을 이루다 보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상인들 간의 싸움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시장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행복했다. 치열한 삶이었지만 그만큼의 보답이 뒤따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모두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데에 썼다. 중등교육을 받기도 어려웠던 시절이건만 상인들은 억척스레 모은 돈으로 대학까지 무사히 보냈다. 화장실 갈 시간까지 참아가며 일한 보람은 충분했던 셈이다.



피란민들이  
임시 장사를 하던 곳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위기를 맞이한 곳

청년몰이 생기면서  
새로운 활기를 찾았

서면시장에 찾아온 위기 그리고 변화

이처럼 1980년대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서면시장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 건 1990년대 중반이다. 인근으로 대형 백화점이 잇달아 들어서며 상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몇 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선 것이 큰 위협이 됐다. 사람들에 떠밀려 다녔던 시절이 무색하게 서면시장을 찾는 발길이 점점 뜸해지면서 자리를 떠나는 상인들이 생겼고, 그 빈자리는 저렴한 임대료를 보고 찾아온 새로운 상인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온 서면시장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중이다.

우선 1층은 식재료를 팔던 상인들이 일부 퇴거하고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내놓는 식당이 늘어나면서 장터보다는 대형 먹거리센터로의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종 짜개탕, 분식, 돈가스, 중식 등 다채로운 메뉴를 맛볼 수 있는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점심시간이면 인근의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서면시장의 역사 그 자체인 칼국수 가게들은 그 수는 현저히 줄었어도 옛맛을 잊지 못해 중년이 되어서도 꾸준히 찾는 이들이 많다. 학창시절의 그리운 추억이 뻗 땀인지 저 멀리 해외에서도 종종 찾아온다. 가게에선 여전히 옛 시절 사용하던 제면용 칼이며 다다닥 엉덩이를 붙여야야 했던 긴 나무의자까지 사용하고 있어 옛 추억이 물씬 느껴진다.

한편 1층 외부에 입점한 철학원과 타로점 가게 역시 새롭게 찾아온 변화 중 하나다. 장을 보거나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이따금 여유가 날 때면 이들을 찾아 고민을 나누며 답을 구한다. 주디스태화 부근의 점집 골목에 비하면 손님의 연령대는 좀 더 높은 편이다.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다 보니 환전소의 모습도 눈에 띈다. 2층은 한복, 포목을 판매하는 곳들이 일부 빠지면서 그 빈자리를 옷수선 가게들이 채운 상태. 이외에도 1층 점집보다 더 오랜 세월을 자랑하는 철학관 너트 곳을 비롯해 커튼, 뜨개방, 속옷, 조명 상점 등이 들어서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서면시장과 상인들이 동고동락한 지도 벌써 50여 년이다. 가게와 함께 나이를 먹어 온 상인들의 얼굴 주름 사이로 시장의 지난 세월이 촘촘히 새겨져 있는 듯하다.



또 한번의 전성기를 꿈꾸는 서면시장 사람들

지난 2018년, 서면시장은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청년상인들에게 2층 공간 일부를 저렴하게 임대해 시장 내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이다. 더 발달하고 경쾌하게 변신한 이 공간의 이름은 온나몰(ONNA MALL). 젊은 상인들이 입주하면서 서면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훨씬 다양해졌다. 그동안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20, 30대가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대부분은 2층 온나몰로 이어지는 계단을 찾지 못해 빙빙 돌며 헤매는 경우이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과의 접촉시간이 늘고 그만큼 익숙해졌을 것이다.

온나몰로 인한 변화는 또 있다. 청년상인들을 통해 유행을 파악한 터줏대감 상인 일부가 판매 품목에 변화를 주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상인들 역시 오랜 세월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선배들을 보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 세대가 다른 만큼 사고방식도 달라 때론 견해차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또한 모두 열심히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이제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크다.

지난해 말, 서면 상권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찾아왔다. 서면시장이 위치한 서면1번가와 주디스태화 인근을 가르는 기준이 됐던 서면 중앙대로에 BRT(중앙버스차로제)가 도입되며 횡단보도가 생겨난 것이다. 지상으로 편안하게 거리를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서면시장 앞을 지나는 유동인구도 크게 늘었다. 교통 문제로 쪼개져 있던 상권이 거대 권역으로 합쳐지며 생겨난 변화다. 덕분에 시장 상인들은 문전성시를 이뤘던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부지런히 가게를 지켜나가고 있다.

부산을 타고 흐른 현대사의 한 자락을 장식하며 그동안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어온 서면시장. 앞으로는 누군가의 과거가 엮힌 장소를 넘어, 여러 세대가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장소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서면시장 3세에서

mini interview

서면시장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어머니가 서면시장에서 꽃집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락거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일손을 거들게 됐습니다. 잠시 도울 요량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20여 년이 훌쩍 지나더군요. 지금도 1층에서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어떻게 변영희 회장직을 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시장은 제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나 다름없어요. 어머니와 저뿐 아니라 조부모님께서도 여기서 가게를 하셨거든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아마 시장이 만들어졌을 무렵부터 시작하셨을 겁니다. 시장의 전성기를 온 가족이 기억하는 셈이죠. 그래서 더욱 시장을 찾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상인으로 일하며 느꼈던 부족한 점들을 개선할 겸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회장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서면시장에 얽힌 유년시절의 추억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롯데백화점이 생기기 전 서면시장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장사를 끝내고 돌아오셨는데, 커다란 포대 자루를 가져오셨더군요. 궁금해서 안을 들춰봤더니 포대 자루 가득히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된 거죠. 다른 가게들도 상황은 비슷했을 거예요. 그때 그 정도로 시장 경기가 좋았습니다.

변영희회장으로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죠. 상인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몰 온나에 입점한 젊은 상인들의 경우 세대가 다르니 기존 상인들과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결국 잘 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바라시나요?

지난 몇 년간 많은 전통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거쳤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해야 손님들이 계속 찾고 싶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특색이 있어야 호기심이 생기니까요.

서면1번가는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이나 기타 내부 콘텐츠에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잘 녹여내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킬 수도 있겠죠. 그동안 시장은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체험적 요소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최민준 회장 (사)서면시장변영희

# 서면시장 OLD&NEW

50여 년의 세월을 따라 오늘날까지 가게를 이어온 토박이 옛 상인들과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당차게 문을 연 젊은 가게들. 신구가 조화롭게 어울린 서면시장 내부를 들여다봤다.



※서면시장 전체 일요일 휴무

**서면갈통횃집**  
 1 생태탕, 알탕, 물회(여름)  
 ☎ 11:30~21:00  
 ☎ 051-803-7833  
 "술 마신 다음 날  
 해장하러  
 오시면 좋아요."

**삼형제 칼국수**  
 1 칼국수, 콩칼국수  
 ☎ 07:00~19:00  
 ☎ 051-804-8057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집 손칼국수 꼭 드셔보세요."

**복단**  
 1 찜빵, 간짜장, 탕수육  
 ☎ 10:00~20:00  
 ☎ 051-816-3355  
 "한자서도 탕수육을  
 즐길 수 있는 '한법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비읍**  
 1 고추장불고기정식,  
 대패삼겹살정식  
 ☎ 11:00~20:00 / (토) 11:00~19:00  
 ☎ 051-806-2002  
 "기운 떨어지는 날엔  
 역시 고기를 먹어야  
 든든해지죠."

**이조 팔빙수 팔칼국수**  
 1 고소한 팔빙수  
 ☎ 11:00~21:00  
 ☎ 051-817-2525  
 "볶은 들깨가루가 들어간  
 고소한 팔빙수는 우리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어요."

**고향이 그리워**  
 1 제육볶음, 동태찌개,  
 청국장  
 ☎ 10:30~20:00  
 ☎ 051-804-0995  
 "집밥처럼 푸짐한 밥상이  
 그리울 때 찾아주세요."

**아리세**  
 1 치킨난반, 덴뿌라 정식  
 ☎ 11:30~20:00  
 ☎ 010-8442-8113  
 "다양한 일본 가정식을  
 먹을 수 있어요."

**브로쓰 마카롱**  
 1 매일 바뀌어요.  
 ☎ 12:00~20:00  
 ☎ 010-6684-6257  
 "매일 종류가 바뀌는  
 독특한 '퐁카롱'이 한 상자에  
 단돈 10,000원!"

**동래추어탕**  
 1 추어탕, 청국장  
 ☎ 11:00~19:30  
 ☎ 051-816-1454  
 "식사료를 주둔하면  
 따끈한 생선구이도  
 함께 나와요."

건강하고  
 푸짐한 끼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전통 식당가(1층)**

전 세계  
 요리를  
 퓨전으로  
 맛볼 수 있는  
**온나몰(2층)**

1 대표 메뉴  
 2 영업시간  
 3 문의처

**1층**  
 식당, 생선가게, 정육점, 과일가게, 꽃집, 사주-철학원, 환전소, 세탁소, 복권가게, 철물점, 신발가게 등

**입점점포**

**2층**  
 옷수선가게, 목욕점, 이불가게, 마크사, 사주-철학원, 커튼가게, 조명가게, 뜨개방, 속옷가게, 식당 등

## 서면시장을 지켜온 사람들

### 조연이

경주상회 운영

T. 051-806-1642 **1F**



#### +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게 되셨어요?

내가 197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 오전에 집안 정리를 다 끝내고, 시어머니 점심을 소쿠리에 싸서 왔었지. 식사하시는 동안은 내가 가게를 맡아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러면서 같이 장사를 하게 됐어. 내가 자식이 둘인데, 시어머니랑 나랑 하나씩 업고 가게를 했지.

#### + 서면시장에 얽힌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소개해주세요.

내가 한창 장사를 할 땐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버스도 못 다녔지. 근데 평소에도 바쁘게 명절 같은 대목엔 얼마나 더 바빴겠어? 새벽이 되어서야 일이 끝나는데 차가 없으니 걸어야 하잖아. 집까지 가려면 파출소도 지나야 했으니까 새댁이었던 나는 엄청 조마조마했지. 다행히 우리 시어머니는 담이 세서 경찰을 만나도 사정을 설명하고 지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다음부터 파출소에서도 우리를 그냥 보내줬어.

#### +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아오는 단골들도 있나요?

그럼, 특히 제사 때는 좋은 것만 올려야 하잖아. 그럴 땐 무조건 우리 가게에 오지. 우리 손님들은 굼감도 자주 찾아. 함안에서 직접 가져오는데 진짜 맛있거든. 외국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려고 사는 사람도 있어. 일본 사람들도 종종 오고.

### 김형자

삼형제 칼국수 운영

T. 051-804-8057 **1F**

#### + 언제부터 가게를 운영하신 건가요?

일한 지는 한 38년 정도 됐어. 그때는 주인 할머니가 따로 있었고, 나는 소개받고 일하러 온 상태였어. 할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지. 칼국수 하나로 자식 9명을 다 키우고 공부까지 시키셨으니까. IMF 이후부터 내가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어.

#### + 예전엔 기본 칼국수 한 그릇이 얼마였어요?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땐 한 그릇에 150원이었어. 지금은 5,000원이니까 꽤 가격 차이가 나. 가격은 변했어도 맛은 그대로니까 그때 자주 오던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가게를 찾아와.

#### + 하루에 칼국수 몇 그릇까지 팔아보셨어요?

시장이 잘 나갔을 때는 하루에 밀가루 몇 포대를 쓸 정도로 칼국수를 많이 팔았어. 세어보진 않았지만 200그릇 정도는 판 것 같아. 김밥도 그만큼 많이 썰었어.

#### + 직접 면발을 만들려면 번거롭지 않으세요?

지금도 어깨가 아프고 온몸이 뭉쳐있어. 이제 그만해야지 싶지만 그래도 어쩔겠어. 우리 단골들이 다른 데선 이 맛이 안 난다고 계속해달라고 하니까 해야지. 어릴 때부터 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들 장성해서 의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자 싶어.



## 서면시장을 이어가는 사람들

### 오민호

브로쓰 마카롱 운영

T. 010-6684-6257 **2F**

#### +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전공은 웹디자인이었는데 저와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를 틀었어요. 원래 먹을 것에 관심도 많고 디저트 가게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했던 터라 베이킹 쪽으로 입문하게 됐죠. 유명 베이커리, 디저트 체인점을 거치며 근 8년 정도 경력을 쌓았어요. 이후 제 카페도 열어봤고요. 첫 가게는 잘 안돼서 이번이 두 번째예요.

#### + 매일 판매하는 마카롱 종류를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요즘은 카드사에서 매출에 대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줘요. 그런데 저희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의 30% 이상이 1주일 이내 재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메뉴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무얼 만들까 고민은 되지만 그 과정이 재미있어요.

#### + 가게를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요?

가게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개업한 지 3일 후 어떤 손님이 저희 마카롱이 마음에 드셨는지 평소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회원이 엄청 많은 곳이었나 봐요. 그 다음 날 마카롱이 30분 만에 매진되고, 이후 6개월 정도 계속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출근하기도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 계셨을 정도였죠.



### 혜원

지산 철학원 운영

T. 010-6339-1666 **1F**



#### + 주로 어떤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제가 다른 철학원 선생님들에 비해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세 지긋한 분들보다는 20대에서 50대 손님들이 많죠. 장 보러 왔다가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인근 백화점이나 병원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왔다가 들어오시기도 해요. 타로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 + 실제로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시나요?

아무래도 연애, 인연에 관한 질문이 많죠. 그 다음은 직업에 관한 거예요. 사랑과 돈,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 + 사주 상으로 피해야 할 인연이란 게 있을까요?

사주를 보면 권하거나 피하라고 하는 인연이 있죠. 하지만 특정 띠가 무조건 나와 잘 맞거나 안 맞을 거란 법은 없으니까요. 또 개인별로 인생이 어떤 흐름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 +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들도 종종 우리 가게를 찾아와요. 중국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의미를 전할 순 있어요. 사주는 한자를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학문이니깐, 한자를 써드리면 대충 이해하시거든요. 요즘은 통신기술이 좋아서 SNS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타로를 봐드리기도 합니다.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시작!

### 1,000개 이상 첨단 기업 유치 미래 먹거리·청년 일자리 창출

2020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심의통과되면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지구)가 본 궤도에 오른다. 부산, 울산, 경남 중심의 남부권 4차산업 특화 첨단산업단지! 부산도시공사가 센텀2지구에 대해 그리는 큰 구상이다. 전국의 첨단산업단지가 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에서 주거 인프라와 교통 여건이 좋은 부산 해운대구에 첨단산단을 조성해 남부권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 부산이 다시 설렌다!

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대 191만m<sup>2</sup>(58만 평)에 들어선다. 사업비가 1조 4,666억 원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수도권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응하는 남부권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조성을 지향한다. 일명 '부산의 테크노밸리'다. 유치대상 업종은 융합부품소재, 정보통신기술, 첨단 해양, 영상·콘텐츠 등이다.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1,000개 이상의 첨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른다.

####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최적기!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남부권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청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다. 부산은 산업전환 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절을 보냈다. 1990년대 초반 국가산업의 중심이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데도 경공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신발 섬유업의 경공업이 주도했고, 이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중공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의 발전은 산업단지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의제로 4차 산업혁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부산에는 거점 역할을 할 첨단 산업단지가 없었다. 이를 확충하고, 지난 시절과 같은 산업전환 적기를 놓쳐 겪은 경제 쇠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남부권이 힘을 모아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센텀2지구다.

#### 도심 접근성, 교통 등 최상 입지여건!

센텀2지구는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블록체인, 핀테크, 드론, 지능정보, 클린테크산업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다. 그런 첨단기술을 육성하려면 첨단산업단지가 필요하고, 또 우수한 인재의 대거 유입이 필수적이다. 퇴근 이후 삶, 쾌적한 정주환경 등 워라밸(일·생활 균형)이 근로환경에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도심 접근성은 매우 중요해졌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ICT 등 첨단산업체는 고급인력 확보가 쉬운 도심에 있다. 그런 점에서 센텀2지구는 최상의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도시철도 4호선의 2개 역사(반여농산물시장역, 석대역)가 사업예정지 내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경부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가 가까워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이에 더해 컨벤션센터 등 주요 기반시설이 주변지역에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센텀일반산업단지,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금사공업지역 등 연관 산업지와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입지 여건이라 할 만하다. 부산도시공사는 내년 하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고, 2022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특집 2

#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살리기 앞장!

## 이익배당금 400억 원 부산시 배당, 재난 예산 2,000만 원 부산시 기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력



‘시민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 시민 공기업’을 목표로 택지 조성, 주택 건립,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부산도시공사! 2021년 창사 30주년을 앞두고 제2의 창사를 준비하는 지금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은 한결같다. 지난 상반기 온 시민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때 공사 전 임직원도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온정의 손길로 지역의 고통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전한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공사는 지난 3월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예방’과 ‘당면 어려움 해소’를 지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3개 분야 7개 과제’로 구성된 1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영구임대주택 65호 상가와 아파트형 임대공장 40개 실의 임대료를 지원했으며, 자체 대응이 힘든 취약계층에 마스크 13만 6천 개를 선제적으로 공급했다. 또 재난지원예산 2천만 원과 이익배당금 400억 원을 부산시에 지원하는 등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공사는 또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힘을 보태고자, 2차 지역경제살리기 종합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사내 복지제도를 활용해 공사 인근 서면시장과 ‘1社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으며, 코로나블루(우울증)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세대에 반려식물과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위축된 화훼소비를 진작하고자 ‘BMC 꽃이 피었습니다(꽃나눔)’ 행사를 개최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방역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추진,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선도

공사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그간의 민생지원을 넘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건설업을 이끌어 가는



① 마스크 전달식 ② 부산도시공사-서면시장 자매결연 협약식 ③ BMC 사랑의 꽃 나눔 ④ 부산건설협의회와의 간담회

공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부산 성장 발판이 될 새로운 원동력을 발굴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다.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맞게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재정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약 76.5%인 1,757억 원 정도를 상반기 내 집행한다. 계획 중인 사업은 1~2년 내 조기발주하여 지역의 일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공사가 올해와 내년에 준비 중인 사업은 11개 지구 3조 원 규모다.

주요사업은 해운대구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남구 문현 혁신도시 3단계 사업,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첫 번째 공공주택 건립사업이다. 금융산업 혁신의 발판이 될 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 3단계 사업은 지난 4월 공모공고를 냈고, 7월 사업제안서를 접수한다. 부산시민공원 내 건립하는 2,000석 규모의 부산국제아트센터도 하반기 내 착공하며, 사업비는 977억 원이다. 에코델타시티 내 첫 번째 공공주택 2,962세대는 지난 5월 사업자를 공모하고 10월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3개 블록 동시 추진 및 지역의무 참여비율 40% 이상 적용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된다. 일광지구 행복주택 999세대도 지역의무 참여비율 49% 이상을 적용하고,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해 지역건설사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역건설협회들과 힘을 합쳐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및 건설업 살리기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민간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적극 수용하고, 지역 건설업의 경쟁

력을 키워서 일자리 창출과 상생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침이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신규 건설사업 발굴과 함께, 40%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한다. 민간사업자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 하도급, 자재,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지역건설업계는 공사가 조기발주로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가덕신공항 유치와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함께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와 정책마련으로 제2도시 부산의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SOC건설로 도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는데 공사가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또한, 4차산업 업종이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고 지식산업단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역에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이러한 업종과 기반유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공사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차질 없이 하는 한편 민간건설업계가 요청한 사업공모전 설명회 개최, 지역업체 배정 물량 확대,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선도, 적정 공사단가 책정 등의 요구에 적극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바다가 주요 뉴스

1



## 도시에 가치를, 우리 삶에 같이,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인정받다

- + 2019년 부산시 사회공헌장 '나눔 부문' 수상 (19년 9월)
- + 2019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공동체참여 부문' 대상 (19년 12월)
- + 2019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19년 10월)
- + 2019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창간사보 부문' 대상 (19년 12월)
- + 2019년 부산시 일자리창출 실적평가 '우수' 등급 (20년 2월)
- + 2020년 제21회 부산녹색환경상 '녹색기업 부문' 본상 (20년 6월)
- + 2020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20년 6월)

2



##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다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협약 체결 (19년 10월)
  - 총 9개구에 137억 원 지원 완료
  -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 + 생활 SOC 지원 사업 추진 (19년 10월~)
  - 총 7개구에 105억 원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주민복지시설 건립 지원(건강센터, 목욕탕 등)

3



## 입주민과의 소통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다

※ CEO 시민중심경영 제1호 혁신과제

- + 다대3, 학장지구 영구임대아파트(20년 5월) 및 반송지구 사회복지관(20년 1월)에 승강기 총 11대 추가 설치
- + 덕천2, 동삼1, 다대4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내 총 12대 추가 설치 예정

4



## 시민과 함께 '바다가' 콘서트를 개최하다

- + 부산 청년 하우스 콘서트 (19년 10월)
- + 바다가 들려주는 행복한 우리집 콘서트 (19년 10월)
- + 야미초 오르락 내리락 콘서트 (19년 12월)

## 2019.9. ~ 2020.6.

## 다양한 인증 획득, 우수 공기업의 표준이 되다

- + 2019 여가친화기업 인증 (문화체육관광부, 19년 12월)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45001) 인증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년 1월)
-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년 4월)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 +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항만재개발 공동이행 협약 체결 (20년 5월)
  - 우리공사,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한국철도공사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19년 12월, 전국 최초, 지방공기업 유일)
  - 경사주거지의 새바람, 셋디산복마을(서구 남부민동 일원, 243억 원 투입)
  - 경사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공공임대주택 30호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2곳, 도심 숲 탐방플랫폼,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마을 SOC를 조성하고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
- + 부산진구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년 2월)



## 시민의 일상을 만든다(사업준공)

- +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19년 9월)
- +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19년 10월)
- + 동래역 행복주택 (19년 10월)
- +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19년 12월)
- + 일광지구 3, 5-6BL 공공분양주택 (19년 12월)
- +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년 3월)



## 입주민 공동체와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다

- + 영구임대아파트 7개지구 내 총 1.3km 'BMC 문화거리' 조성 (~20년 5월)
- +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마을공동체 참여사업'



# 바다가, 행복을 짓다 + 부산을 품다

## 미래도시를 창조합니다



### 오서리아 관광단지

기장군 기장읍 대변·시랑리 일원  
366만 2천㎡ | ₩ 9,144억 원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218만㎡ | ₩ 9,908억 원

## 집과 공간을 짓습니다



### 에코델타시티 18, 19, 20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2,962세대 | ₩ 9,605억 원



### 시창앞 행복주택

연제구 연산동 1590-25 일원  
1,196세대 | ₩ 3,029억 원



### 일광지구 행복주택

기장군 일광면 일광지구도시개발구역 내 7BL  
999세대 | ₩ 1,535억 원



### 아미4 행복주택

서구 아미동2가 237-237번지 일원  
767세대 | ₩ 1,144억 원



###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 복합개발

남구 용호동 23번지, 87-4번지 (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직원사택) | 행복주택 68세대, 공단사택 20세대, 인생후반전지원센터 등 | ₩ 147억 원



### 금사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금정구 금사동 388-4 일원  
행복주택 40세대, 주민센터 등 공공복합시설  
₩ 141억 원



### 부산국제아트센터

부산진구 연지동 60번지 일원(부산시민공원 내)  
클래식 전용콘서트홀 2,000석 등 | ₩ 977억 원

## 일터를 만듭니다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사상구 학장동 230-1번지  
1만 7천㎡ | ₩ 838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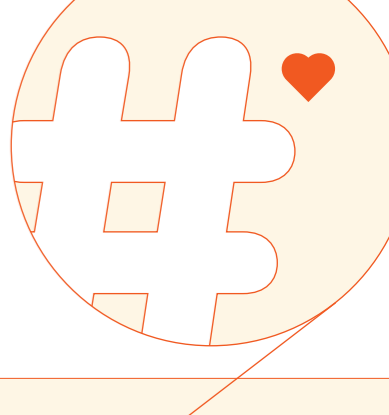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해운대구 반여동·반송동·석대동 일원  
191만 2천㎡ | ₩ 1조 4,666억 원

# 일상 속에서 만난 '나의 부산'을 소개합니다

새삼스레 설레더니, 불현듯 몽클대더니, 그곳은 너와 나의 부산이더라.  
바다가 사람들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을 담아 더욱 푸른 바다가 먼저 인사하는 도시, 여기는 부산입니다!



👤 박하연

❤️👤📌 ..... 📌

#다대포 #금빛시간  
일몰 명소인 다대포, 반짝거리는 윤슬과 대조되는 사람들의 검은 실루엣이 오히려 자연과 사람이 하나된 듯한 시간이네요.

👤 공재준

❤️👤📌 ..... 📌

#서면 서쪽동네 #집에서 본 부산도시공사  
해뜨는 아침, 회사를 보며 출근 준비!

👤 장진원

❤️👤📌 ..... 📌

#달 뜬 센텀 #빼곡한 마천루 #도심의 빛  
달빛과 불빛 그 오묘한 조화와 아름다움

👤 홍다혜

❤️👤📌 ..... 📌

#행복한 브런치 #전포동 맛집 탐방 #모임 목적은 다이어트  
바다가 꽃순이들이 전하는 "당신의 눈동자에 치어스"

👤 성홍규

❤️👤📌 ..... 📌

#서면 #롯데호텔 #하트♡♡  
BMC 여러분께 제 마음의 하트를 보냅니다~ 뽕뽕

👤 문지영

❤️👤📌 ..... 📌

#서쪽공원 #삼락공원 #초록초록  
초록초록 산책길 걸으며 기운 충전 완료!

👤 배경란

❤️👤📌 ..... 📌

#해운대 #바다 수영 #브이 짠 #여걸 4  
미묘의 여걸 4! 해운대 바다는 우리가 접수한다!

👤 한민호

❤️👤📌 ..... 📌

#낙동강하구둑 #자전거 #민호는 고독남 #나도 여행 갈래  
서부산 자전거 투어 중 발견한 비행기! 나도 데려가오~

👤 김지현

❤️👤📌 ..... 📌

#금정산 숲속 #쪽쪽 뻗은 나무 #햇살  
금정산 숲 산책길. 눈부신 햇살, 선선한 바람, 모든 날이 좋았다! 나도 데려가오~

👤 손정아

❤️👤📌 ..... 📌

#정관 좌광천 #부산도시공사가 만든 신도시  
부산도시공사의 열정과 땀이 깃든 신도시, 정관 좌광천에도 행복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이한길

❤️👤📌 ..... 📌

#오륙도 #이기대 트래킹코스 끝  
아, 끝이다 다시 돌아가는 시작점일지라도.

👤 이용섭

❤️👤📌 ..... 📌

#회동수원지 #힐링  
걷다 만난 청명한 오아시스! 아, 이런 게 힐링이제!

지난호 독자 의견

QUIZ

QR코드를 인식해 이번호 퀴즈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세요.



김미영 부산 북구

시원한 바다 사진 표지로 책을 책상 위에 두는 것만으로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2~15 페이지에 걸쳐 오시리아를 쉽게 알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생긴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부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니 '진짜 생기는구나' 했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으로 관광지 위치도 지도에 표시해 주셨는데 한눈에 잘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보통 홍보책자는 사진 위주로 훑어보게 되는데 '바다가'는 실제 부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도 알려주고 반가운 곳들의 숨은 정보도 있어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호가 기대됩니다.

이경현 부산 동래구

우리 사무실로 '바다가'가 왔습니다. 너무 이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이면 우리 아이들이 구경하고 뛰어놀 수 있는 테마파크가 부산에 생긴다니 너무 좋고 기대가 됩니다. 완공될 때까지 부산도시공사에서 많이 힘써주세요.

김영락 부산 연제구

'바다가'의 뜻이 궁금했는데, 부산도시공사의 자음으로 어휘를 활용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케렌시아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 자문자답도 해 보았습니다. 기사, 시원한 사진, 그림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읽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정도로 구성이 좋아 편잡하는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시리아의 경우 그동안 이름만 알았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주변이 그렇게 잘 가꾸어져 있다는 것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반드시 오시리아 해안산책로를 방문해 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정남이 부산 금정구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전통시장은 언제 가도 정이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부산의 전통시장들이 지역축제, 역사자원을 활용해 관광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관광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바다가'에서 기획 취재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YMB님 경북 포항시

'부산동네' 코너가 가장 좋았습니다. 서울, 부산 어디든 유명하다고 해서 가보면 여기저기 카페에 대기업 브랜드 점포가 넘쳐납니다. 그에 비해 작고 오래된 골목에는 그 도시만의 깊고 진한 냄새가 배있어요. 그런 매력을 소개해주어서 너무 따뜻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지도를 첨부해 독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데도 무리가 없도록 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입사원 청년들의 인터뷰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무엇이든 '첫' 직장, '첫' 도전이 가장 아름답고 열정적이니까요.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공기업 입사가 대세다 보니, 부산청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입사할 수 있었는지 성취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한 달 한 해가 가는 건 아쉽지만 따뜻하고 알찬 '바다가'를 받아보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호에도 좋은 내용 기대합니다.

○○○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대 191만㎡(58만 평)에 들어선다.

(힌트: 54~55p)

참여방법 엽서 우편 전달 또는 QR코드 스캔해 설문참여

바다가에서 좋았던 기사,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개선해야 할 점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위 퀴즈의 정답도 함께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부산의 일상을 만듭니다

행복을 더하고

-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사업
보금자리를 만드는 주택건설사업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

기쁨을 곱하고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
부산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문화와 첨단기술이 있는 공공건축사업

마음을 나눕니다

- 주민이 행복한 주거복지사업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도시재생사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공헌사업



부산도시공사의 자음만 모아보니, 부산도시공사가 되었고 사이사이에 있는 서울 기울여보니 '바다가'가 되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또 다른 이름, 그리고 부산을 담은 책 '바다가'는 부산의 바다처럼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시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고 나누어 가겠습니다.



1.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유의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바다가>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제안사항을 적어주세요.

3.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칭찬 또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4. 독자 퀴즈 정답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 연락처 미기재 시 상품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